

한인뉴스

2

2011 VOL.176

haninnewsinni@gmail.com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Truck & Bus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HYUNDAI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알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알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2/4		2/5~2/28	12/25~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슈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Kamuella Vilas Sminyak The Ahimsa
룽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Java Banan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RAFFLES
INTERNATIONAL GROUP OF SCHOOLS

Prepatory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Junior College
Diploma Programs

OUTSTANDING Cambridge Learner Awards



LEE JI HOON
achieved the third highest mark in
Indonesia in June 2010 for eight subjects
in the Cambridge IGCSE examinations



JORNANDES XIONG
achieved the highest mark in
Indonesia in the June 2010
Cambridge IGCSE examinations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Our Korean students have secured places
at TOP Universities in KOREA:**

Joong Jin Kwak - Hong Ik University
Shal Rom Kim -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ong Chan Park - Han Dong University
Dong Young Park - Han Dong University
Hyun Ah An - Hong Ik University

Lee Do Hun - Hong Ik University
Lee Sung Hyun - Korea University
Lee Young Bin - Kuk Min University
Jae Min L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raffles
psb
Singapore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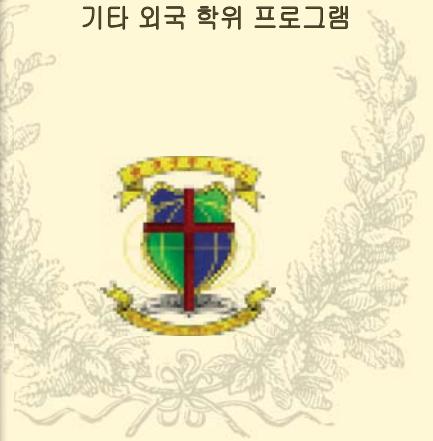
Kelapa Gading Campus
Jl. Gading Pelangi No.1
Kompleks Gading Residence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50
Tel: +62 21 4587 4222/23/24
Fax: +62 21 4587 4225

Kebon Jeruk Campus
Jl. Pesanggrahan Raya, Meruya Utara
Jakarta Barat 11620
Tel: +62 21 584 5671
Fax: +62 21 584 7951
contactus@psb-school.sch.id
www.psb-school.sch.id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Jl. Gedung Hijau Raya I No.1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12310
Tel: +62 21 7590 3342
Fax: +62 21 7590 3414
www.raffles-international.org

유아과정
유치원과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기타 외국 학위 프로그램



캠브리지 중등 교과과정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자

LEE JI HOON (이지훈) : 2010학년도 캠브리지 대학 IGCSE 시험
8과목 인도네시아 지역 최우수 성적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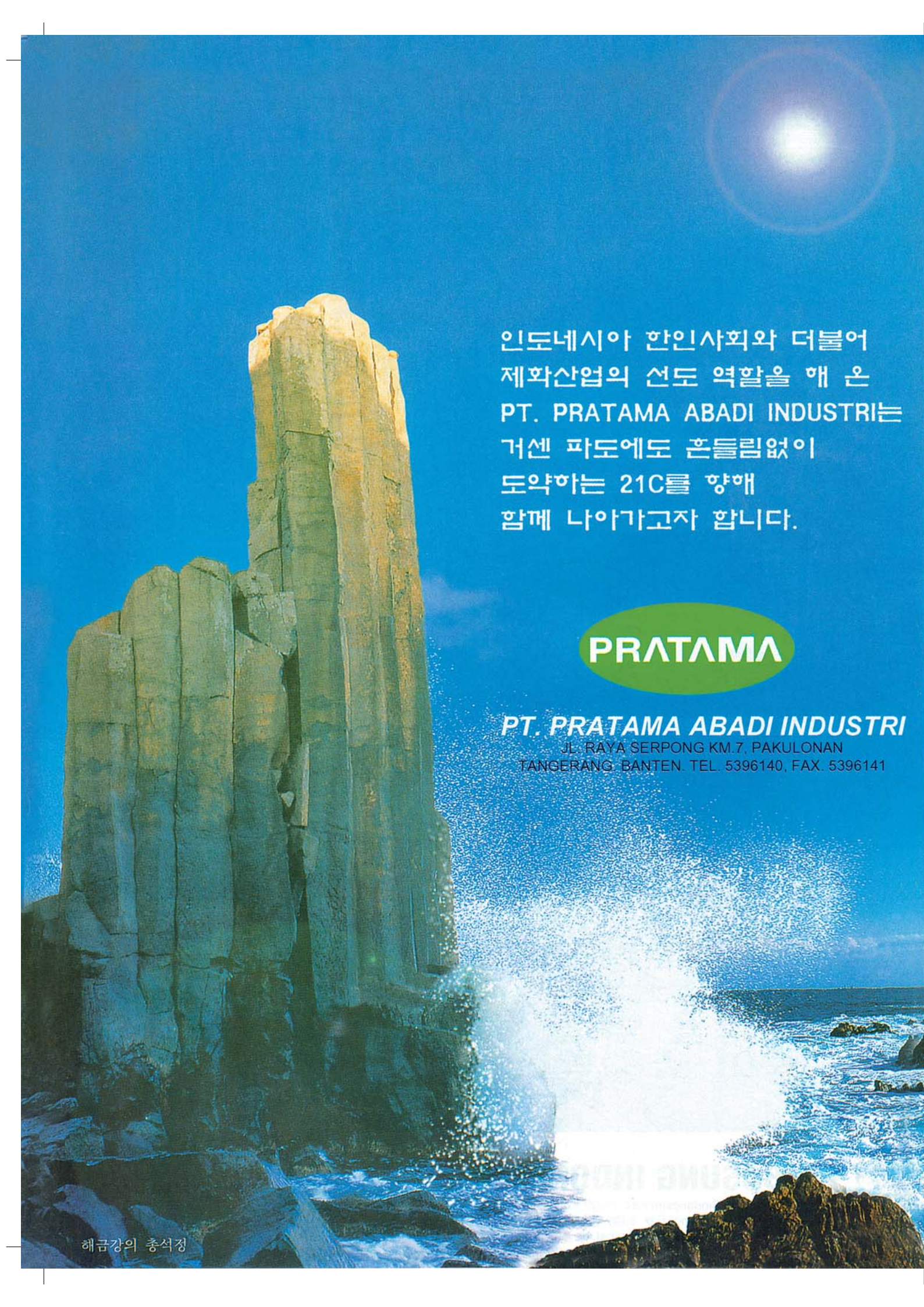
JORNANDES XIONG (인도네시아) : 2010학년도 캠브리지 대학 IGCSE 시험,
영어 과목 인도네시아 지역 최고 성적 입상

아래의 한국인 졸업생들이 연속으로 국내 우수대학 재학 중입니다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Jl. Gedung Hijau Raya I No.1
Pondok Indah Jakarta Selatan 12310
Tel: +62 21 7590 3342 Fax: +62 21 7590 3414
www.raffles-international.org

곽 중 진 - 홍익대학교
김 살 롬 -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 동 찬 - 한동대학교
박 동 영 - 한동대학교

이 도 훈 - 홍익대학교
이 성 현 - 고려대학교
이 용 빈 - 국민대학교
임 재 민 - 서울대학교
안 현 아 - 홍익대학교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선도 역할을 해 온
PT. PRATAMA ABADI INDUSTRI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없이
도약하는 21C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PRATAMA

PT. PRATAMA ABADI INDUSTRI

JL. RAYA SERPONG KM.7, PAKULONAN
TANGERANG BANTEN. TEL. 5396140, FAX. 5396141



제 몸의 열기로

언 땅에서 피어난

황홀한 어지러움이구나

눈색이꽃이여

꿈꾸는 갈망으로

뜨거운 손으로

달콤한 독주를 건네는구나

황금술잔이여

칼바람 매운 눈보라를 지나

우리의 삶도 어느 한 계절엔

찬란하게 빛나리



황금의 꽃 **눈색이꽃**(미나리아재비과) 학명 : *Adonis amurensis*

꽃말 : 영원한 사랑(동양), 슬픈 추억(서양)

한해살이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들꽃. 햇살을 받으면 밝게 빛나는 노란 꽃잎 때문에 ‘황금의 꽃’ 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부유함과 행복을 상징한다. 복수(福壽)초라고 불리며, 얼음새꽃, 원일초, 설연화 등 많은



이달의 읽을거리

차례



표지설명 ▶▶▶

인간관계는 개인 삶의 척도입니다. 멋진 데이 마케팅 전략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주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지그림 : Diki Satria Nugraha

-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7
- 차 한 잔 마시며
 - / 인도네시아 아리랑<김문환> 10
- 이달의 테마 / 14일의 기념일 12
- 인터뷰 / 방치영 공인회계사<신성철>..... 16
- 자카르타 스케치 / 앞니 빠진 중강새야<정무송> 18



- 이모저모, 한인사회 19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졸업식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신축공사 기공식
 - KOCAM 2011 제2차 신년경제간담회
 - 교회와 한인들이 함께 드리는 조찬기도회
 - 부영그룹 교구 기증식
 - 인도네시아 최초 프로골프단 '이루다' 탄생
 - 반질고리 퀼트 전시회
 - 인니기아대책 IFHI재단
 - 성찬스님의 보로부두르 특강
 - 제1회 교민 나라사랑 한마음 강연회 - 자유총연맹
 - 직스 교사 퇴임식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2월은 졸업의 계절입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멋진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테마를 '14일의 기념일'로 잡았습니다.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날을 핑계 삼아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네 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두 사람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소중한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월입니다. 꽃은 씨 안에 있습니다. 씨는 2월의 땅 속에 있습니다. 지금쯤 외출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린 것이, 머지않아 무성한 잎을 피우고 자기만의 색깔로 꽃을 피우겠지요. 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 장차 달디단 열매로 영글기를 기원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정자



- 브라위자야국립대학교 졸업식
- 신간 안내 / 간초동사 34 생생표현 2690
- 동포자녀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회 열린강좌



문화탐방기

- / 상식과 편견을 넘어 <정선영 AIS 10> 32
- 삶의 향기 · 이 사람 - 서광종 34
- 이병수의 보험교실
- / 자동차도난사고와 관련한 주의사항<이병수> 36
- 길 위에서
- / 잡초인생 예찬<박관구> 41
-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 / 영혼이 머문다는 호수, 끌리무뜨 <김성월> 42
-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 / 채무보증법 <이승민> 44
-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 / 사랑을 믿어요 <허영순> 47
- 이슬람문화의 이해
- / 자와 이슬람의 이해 <안선근> 50
- 와칭! 코리아
- / 중국의 진정한 G2 역할을 바란다 52

- / 북한의 연이은 대화공세의 의의 53
- 특별기고
- / 거석문화가 숨 쉬고 있는 섬, 솜바<가종수> 54
- 제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당선작
- / 당신의 별은 어느 것인가 <김덕우 AIS 10> 56
- 이 달의 시
- / 그 어느 날 당신은 <이영숙> 59
- 편집장이 뽑은 이 달의 책
- /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60
- 인도네시아 경제뉴스 62
- 공지사항 64
-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2011 2월 공지사항/법률상담/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 대한항공 안내
- 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생활정보 71
- 제22회 한국어 능력시험 요강 안내 77
- 문화회관 이용 안내 78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송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리랑

김 문 환/논설위원

한국의 대표적 전통민요인 ‘아리랑’은 고개의 이름이자 고개를 넘어갈 때의 고단함, 아기를 낳을 때의 산고(産苦)의 표현이고 한(恨)의 표출을 의미한다. 일부 아리랑에서 아리랑고개는 조선시대 서울과 경상도를 오갈 때의 주요 길목이었던 문경새재를 뜻하기도 하며 서울 중심부와 북동쪽 사이를 잇는 정릉고개를 지칭하기도 한다.

요즘 모 한인방송이 자체 제작한 ‘오랑 꼬레아의 아리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DVD로 출시되고 있다. 4부작으로 제작된 이 영상물 속에는 한인사회의 과거, 현재가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며 누구도 공론화하지 못했던 민감한 문제에까지 접근하여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다시 우리들의 후세대가 뛰어 노는 학교 교정과 역동적인 산업현장으로 초점을 맞춰 우리 한인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염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영상물을 둘러본 시청자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이곳에 오랫동안 등지를 튼 교민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족적과 궤를 같이하는 ‘제1부 한인역사기행’과 ‘제2부 인도네시아인 드림’에 동감하며 순응하는 편인가 하면, ‘제3부 한류 in 인도네시아’에서 소개된 허영(許泳)이라는 조선인 출신 연극영화 예술가가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원조라는 증언과 지금 강하게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초석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지난 해 11월 KBS 서울 프라이즈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4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제의 민감성과 다소 보수적인 이곳 한인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남녀간 성별에 따라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여성들의 입장에서 아예 ‘남겨진 가족’이라는 제목 자체부터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는 혹시 이러한 팩트가 나의 가정과도 연계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작품이 의도하는 바는 인륜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부각시키며 외국인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여 이미 현실화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고 예방하자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은 한 선교사의 헌신적 봉사활동



동과 족자카르타 거주 교민의 반전적 이야기로 증명하고 있다.

이 영상물이 보여주는대로 우리 한인사회는 눈물,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된 채 수많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1독립운동 직후인 1920년에 일제 당국의 체포령을 피하기 위해 중국 망명생활을 거쳐 떠나면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에 발을 붙여 자바땅을 밟은 최초의 한국인으로 기록되는 장운원씨로부터 시작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군속의 신분으로 탄중 뿌리옥항에 상륙한 1,400명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형극의 길, 5.16혁명 직후 1~2천만불에 지나지 않은 빈곤한 외환보유국으로서 오히려 외자유치가 긴박하였던 상황에서 과감하게 대한민국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나섰다 산림개발업체와 건설업체들의 투혼은 제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대 초 오일, 가스, 석탄으로 대변되는 자원산업의 선구자로 계승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노동집약산업들의 기세는 한인사회의 규모를 일시에 성년의 모습으로 성장시켰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1942년 3월 1일 새벽녘에 일본제국군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유전확보를 위해 상륙하였던 자바의 서쪽 끝 바로 그 지점에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한국의 국영제철사가 자본과 기술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익을 위해 상륙하기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말로만 무성하던 ‘한인 진출사’, 또는 ‘한인 이민사’에 대한 총괄적인 기록화 작업이 뜻밖에도 간행물이 아닌 영상물로 먼저 정리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교민들은 해당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상효과의 독자성에 매료되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학창시절부터 나의 서가에 빛이 바랜 채 꽃혀있는 ‘경제학원론’ 처럼 이 녀 강의 디스크도 이제 나의 손길이 쉽게 닿는 사정거리에 자리잡아 목마를 때 무의식적으로 냉장고의 문을 열어 꺼내 드는 코카콜라처럼 이 소박하지만 알찬 작품이 이제부터는 나의 감성의 갈증을 풀어주는 서가 속의 코카콜라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데이문화, 데이마케팅

♡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만들어 스스로 기념하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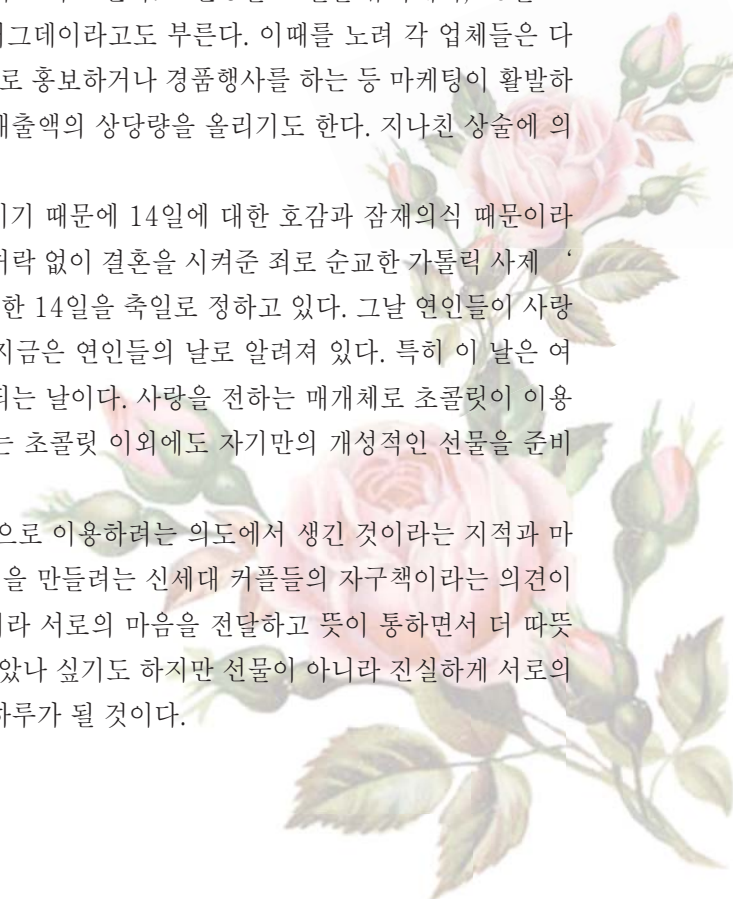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풍부한 감성의 존재로써 많은 일을 경험하며, 그 경험들을 의미 있는 일상으로 기억하고 가치를 매기려 애를 쓴다. 특별한 의미를 주는 날에, 기념할 만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관습과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조상에 대한 예의나 공동체적인 배려와 관심 등에서 출발했을 특별한 날(special day)에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욕망과 기억과 감정의 존재로서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21세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비일비재하다. 역으로, 첨단을 걷는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부분 즉 믿음, 소망, 사랑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표현인지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신세대 젊은이들은 이미 그들만의 문화로 14일의 기념일을 받아들이고 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경영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의 경영전략을 데이마케팅(Day Marketing)이라고 하는데, N세대 사이에서 매월 14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유행하면서 성행하는 새로운 마케팅을 말한다. 아래에 소개한 14일의 기념일 외에도 1자가 네 번 겹친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 2자가 세 번 겹치는 2월 22일을 커플데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음료회사 주도로 5월 14일을 옐로우데이와 피앙세데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9월 14일을 뮤직데이, 10월 14일을 레드데이, 11월 14일을 오렌지데이, 12월 14일을 허그데이라고도 부른다. 이때를 노려 각 업체들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경품행사를 하는 등 마케팅이 활발하다. 다이어리나 초콜릿 등 일부 품목은 해당 날짜에 연간 매출액의 상당량을 올리기도 한다. 지나친 상술에 의해 억지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14일이 기념일이 된 이유는 발렌타인데이가 2월 14일이기 때문에 14일에 대한 호감과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황제의 허락 없이 결혼을 시켜준 죄로 순교한 가톨릭 사제 '발렌타인'의 이름을 따서 생긴 발렌타인데이는 그가 순교한 14일을 축일로 정하고 있다. 그날 연인들이 사랑의 선물이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와 지금은 연인들의 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날은 여자가 평소 좋아했던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허락되는 날이다.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이 이용되는데 그것은 초콜릿의 달콤함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콜릿 이외에도 자기만의 개성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4일의 기념일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라는 지적과 마땅히 즐길 만한 이벤트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뜻 깊은 추억을 만들려는 신세대 커플들의 자구책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뜻이 통하면서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어나가는 데 있을 것이다. 너무 상업화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선물이 아니라 진실하게 서로의 마음을 전한다면 두 사람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하루가 될 것이다.





14일의 기념일



* 1월 14일 ♠♣♠ 다이어리데이 & 캔들데이

한 해 계획을 알차게 세우라는 의미에서 예쁜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연인에게 선물하는 날이다. 다이어리 안에 서로 챙겨야하는 기념일이나 생일을 표기해서 선물하는 것이 센스. 예쁜 양초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캔들데이라고도 한다.



* 2월 14일 ♠♣♠ 발렌타인데이

1년 내내 수많은 14일들을 탄생시킨 연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 이 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로 초콜릿을 선물하는데 초콜릿처럼 달콤한 사랑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상업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초콜릿보다 자기만의 개성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3월 14일 ♠♣♠ 화이트데이

동양에만 있는 이날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화이트데이의 의미는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한 그녀의 마음을 남자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태도를 결정하는 날로 발렌타인데이에 받은 선물을 답례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진다.



* 4월 14일 ♠♣♠ 블랙데이

짜 없는 솔로들끼리 모여 위로의 자장면을 먹는 날로 솔로들의 날이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지 못한 여자와 화이트데이에 여자에게 선물을 주지 못한 남자가 만나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달래주며 솔로 탈출을 다짐한다는 의미가 있다. 옷을 비롯해서 구두, 양말, 액세서리까지 모두 블랙으로 입어야 하고 음식도 자장면을 먹고 커피도 블랙커피를 마신다.

*** 5월 14일 ♠♠♠ 로즈데이 & 옐로우데이**



계절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인 장미가 피는 달, 5월에 열리는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태어난 것이 로즈데이다. 애인이 있는 남자는 그녀를 여왕처럼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장미꽃을 선물한다. 흰장미는 이별, 노란장미는 우정, 빨간장미는 사랑을 의미한다. 블랙데이에 굳은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솔로인 사람들은 이날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어야 독신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봄에 잘 어울리고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여성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옐로우데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 7월 14일 ♠♠♠ 실버데이**

학교나 직장선배 또는 부모님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의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날이다. 이때 초대 받은 선배는 데이트비용을 최대한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연인끼리 은으로 만든 커플반지를 교환하며 장래를 약속한다는 의미로 실버데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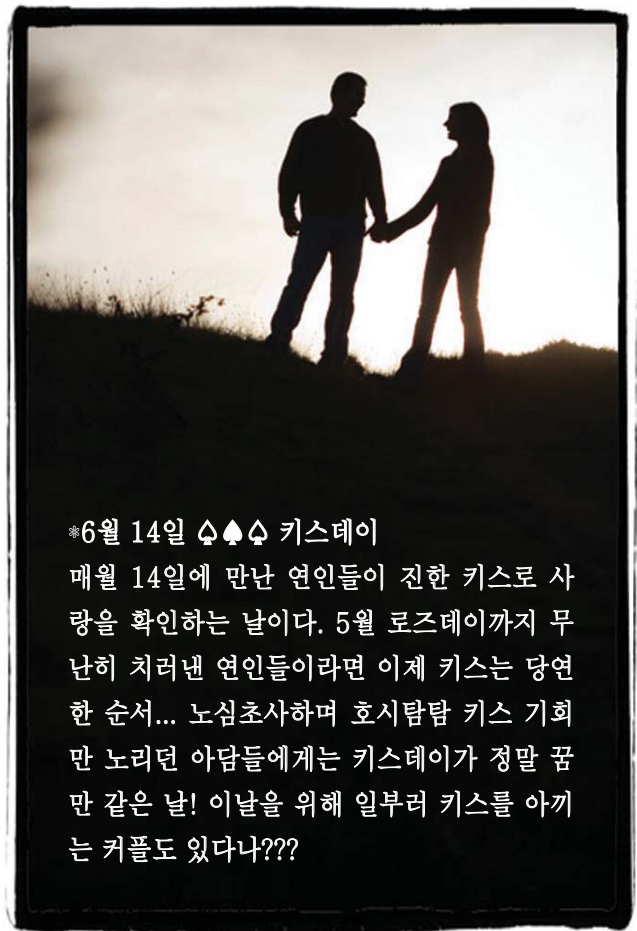


*** 8월 14일 ♠♠♠ 그린데이**

신록이 우거진 곳에서 산림욕을 하는 날이라서 그린데이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뜻한 데이트를 즐기는 맛이 그만이지만, 애인이 없는 솔로들에게는 같은 이름의 소주를 마시며 외로움을 달랠다는 솔로탈출 다짐의 데이이다.

*** 9월 14일 ♠♠♠ 뮤직데이 & 포토데이**

신나는 음악이 있는 곳에서 즐기며 자기의 애인을 소개하는 날이다. 즉, 친구들에게 둘 사이를 공인받는 날이다. 또 이날은 가을풍경이 무르익은 야외에서 연인들이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는 포토데이라고도 한다.



*** 6월 14일 ♠♠♠ 키스데이**

매월 14일에 만난 연인들이 진한 키스로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다. 5월 로즈데이까지 무난히 치러낸 연인들이라면 이제 키스는 당연한 순서... 노심초사하며 호시탐탐 키스 기회만 노리던 아담들에게는 키스데이가 정말 꿈만 같은 날! 이날을 위해 일부러 키스를 아끼는 커플도 있나???

*** 10월 14일 ♠♠♠ 레드데이**

가볍게 와인 한잔을 기울이며 사랑의 밀어를 나누며 분위기를 잡아보자. 연인들이 깊어 가는 가을밤에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 날이다. 근사한 곳에서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 11월 14일 ♠♠♠ 오렌지데이 & 무비데이**

오렌지주스를 마시는 날이라고도 하고 연인끼리 영화를 보는 날이라고 하기도 한다. 가슴 시린 영화의 감동 후에 새콤한 오렌지주스 한 잔!



*** 12월 14일 ♠♠♠ 허그데이 & 머니데이**

연인끼리 껴안는 것이 허락되는 날이다, 매달 14일을 거치는 동안 진정한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제 늑대목도리, 여우목도리가 되어 더 이상 춤지 않을 것이다. 한 해를 무사히 사귀어온 것을 기념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는 날이라는 의미로 머니데이라고도 한다.

둘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데이~~

印尼 최초 외국인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한 방치영 씨

인터뷰 : 신성철 데일리코리아 발행인



“회계사는 다기능 전문직...”

“여러 가지 배우고 싶다”

LG상사 인도네시아 법인에 근무하는 방치영 부장이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방 부장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1985년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국립 이슬람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고, 이후 족자카르타 소재 가자마다대학교(UGM)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다가 6개월 전 LG상사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그는 향후 경력 관리에 회계학이 필수적이라 생각해 2005년부터 팡짜실라 대학교 회계학과에서 다시 3년간 공부하고 졸업한 후, 1년 반 동안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서 대학원 수준인 공인회계사 과정을 이수했고, 회계 공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 도전했다고 한다.

방 부장은 “그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다” 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회사에도 감사한다” 고 합격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방 부장과의 문답 내용

현지에서 어떻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나.

▲ 먼저 학부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수준의 공인회계사 과정(PPAK)을 거쳐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1년 반 동안 UI에서 PPAK 과정을 이수했고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영광도 보너스로 받았다. 이후 1년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취득 절차는.

▲ 3년간 회계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쌓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해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인회계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은.

▲ 재무회계, 정부회계, 회계감사, 관리회계, 재무관리, 세법개론, 회계정보시스템, 상법, 경영환경(사업) 등.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은.

▲ 회계사는 다기능 전문직이다. “재무제표 감사뿐만이 아니라 컨설팅도 하고 M&A업무, 조세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지에서 공인회계사의 비전은.

▲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도 커질 수 있어 한국인 공인회계사 역할과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지에서 유학하고 있는 차세대에게 조언을 한다면.

▲ 회계, 세무, 법학 등 공부를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해 쉬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성에 맞는다면 이들 과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울러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 덕목이다.

현직에 있으면서 부단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계획은

▲ 법학 박사과정과 공인세무사 등에 도전하고 싶다.



그 동안 노동법 관련, 여러 저서를 썼고 이번에 인사·노무와 관련된 책을 발간한다고 들었는데.

▲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그 동안 펴낸 저서를 종합한 것으로 인사·노무 실제사례, 노동법 분석, 노동법 규정, 대처요령, 규정 표준, 문제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0. 3. 28. KOTA PLUIT에서

앞니 빠진 증강새야

인니의 아이들은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탄다
그러면서도 사진을 찍자고 하면 천진난만한 웃음을 사양하지 않고 보여준다
맑은 웃음소리를 잔뜩 묻힌 채
카메라 속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 주위에서 새들이 즐겁게
즐겁게 날아오른다

<사진과 글 : 정무송 · 한인뉴스편집위원>

뛰어라, 더 높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초등과정 졸업식

1월 27일(목),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초등과정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은 초등과정 72명(남33명, 여39명)이다.

1976년 1월에 전교생 26명, 3학년 3학급으로 출발했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올해로 초등과정 32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 유일하고, 전통 있는 한국학교로 자리 잡았다.

졸업식장에는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를 비롯하여 조규철 한인회부회장, 정무웅 재단부이사장, 민주평통 서남아협회 회장, 학부모, 후배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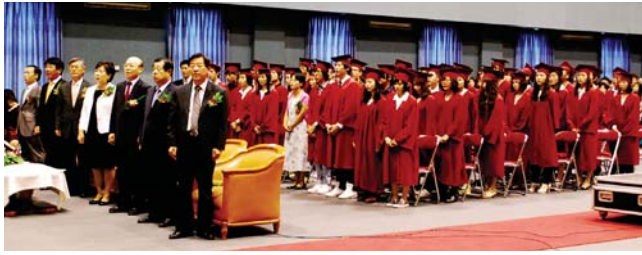
졸업생 72명 중 65명은 본교로, 5명은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 2명은 본국으로 귀국한다.



졸업생 현황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본교진학	귀국	기타
34	38	72	65	2	5





날아라, 더 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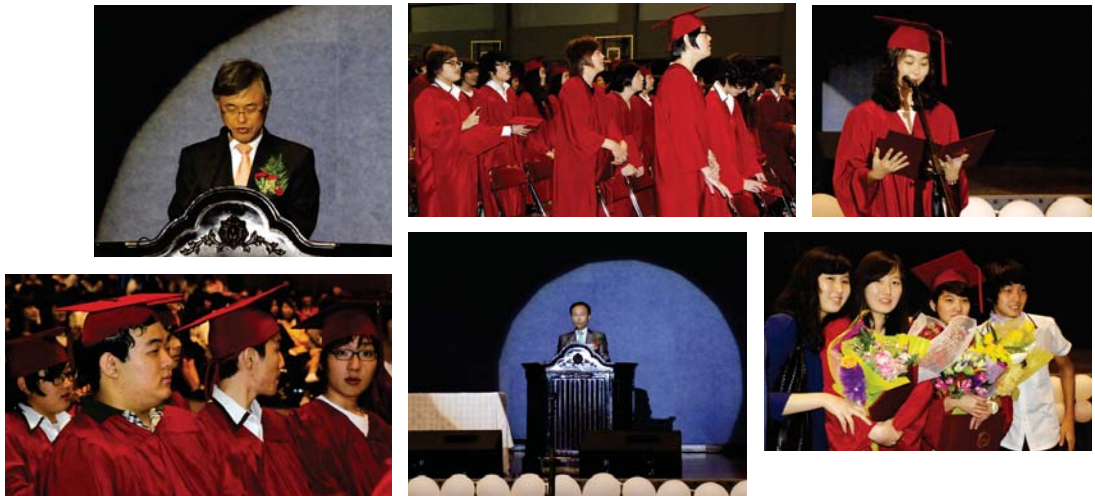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교과정 졸업식

27일 초등과정 졸업에 이어 28일에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 고교과정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내빈을 모시고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이번 졸업식에서 113명의 졸업생이 졸업장과 함께 12년 동안의 기초 학력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졸업생들은 서울대에 진학한 4명을 비롯하여 102명은 국내 대학에, 11명은 외국 우수 대학에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다. 학교 측에서는 외국 대학 진학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졸업식은 “장차 정치, 외교,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달라” 는 선종복 교장의 회고사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달라” 는 김호영 대사 및 내빈의 축사로 이어지며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재학생 대표 학생회장 이현석 군의 송사와 졸업생 대표 김수영 양의 답사는 잠시 졸업식장을 숙연하게 했으나 곧이어 모자를 집어던지면 환호하는 모습에서 힘찬 날갯짓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의 졸업생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믿는다.



졸업생 현황

졸업생 수			진학 현황				
남	여	계	국내	외국	미확정	기타	계
64	49	113	102	11	0	0	113

진학 상황 (합격기준, 중복합격 포함)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서강	한양	성균관	이화	중앙	경희	홍익	외대	인하	건국	동국	기타	계
합격	4	6	10	13	6	6	9	13	5	6	13	3	23	9	101	227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건물 신축공사 기공식

1월 28일 오전 9.00,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신축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호영 주인니한국대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4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건물 설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받은 뒤 건물 공사의 첫 삽을 뜨고, 기념식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고등학교 신축공사는 학교발전을 염원하는 학교 재단이사회의 계획과 결단으로 2009년부터 논의하여 2010년 초에 교과부의 지원을 힘입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교사들과 행정요원들로 구성된 건축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만든 설계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20일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숙원사업을 실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거의 고등학교 건물은 학교 교사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1997년 고교 과정이 신설되면서 기존 체육관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교실을 만들다보니, 2층의 공간 속에서 과다하게 밀집된 교실과 구조, 환기, 외관, 안전 등이 적합하지 않아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새로 지을 건물은 15명에서 40명의 학생이 수준별로 수업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을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결정하였고, 내진설계, 환기 등 안전에 우선권을 두고 교실, 특별실, 분반실은 쾌적하고 활기찬 학업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4층에 계획된 다목적 공연장은 300석 규모로 학생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민사회가 함께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인사말을 한 선종복 교장은 건물의 외관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학교 못지않게 아름다울 것이라며 기대와 기쁨을 나타냈다.

참석한 내빈과 학교 관계자들은 공사현장과 조감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13개월 동안 진행될 건물 공사가 재해 없이 무사히 완료되기를 바라며 큰 박수를 보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신축공사

- 공사기간: 2010.12.25~2012.1.24
- 시 공 사: (주)서희건설
- 설 계 사: PT. Makmur Sistimindo. Perkasa
- C M 사: PT. Jesindo E&C
- 건축면적: 1,344m²
- 연 면 적: 6,465m² (1,965명)
-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 건축구조: 파일 / 철근 콘크리트 구조
- 주요설비: 엘리베이터 및 공연 시설
- 실별계획:

교 실	25실
특별실	14실
휴게실	2실
공연장	343석
기 타	33실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신입생 면접

2011년 1월 26일에 85명의 초등과정 신입생 예비 소집이 JIKS에서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귀엽고 발랄한 신입생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JIKS에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학년 선생님들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자기 이름과 모습도 그려보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께는 또박또박 대답을 잘했는데, 밖으로 나와서는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잊어버려 어머니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하여 2월 8일 입학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소식 :정지미, 직스교사>

KOCHAM 2011 제2차 신년 경제간담회

마리 인도네시아 상업부 장관 (IBU MARI E. PANGESTU, TRADE MINISTER)
2011년 경제전망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주요방향을 전하며
포스코 등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감사의 뜻 전달



지난 1월 12일, KOCHAM과 한국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인도네시아 상업부 고위 각료, 한인기업인들과 대사관, 상공회의소 간의 신년하례회를 겸하는 ‘2011년 신년경제간담회’가 꾸닝안호텔에서 열렸다.

KOCHAM은 지난해부터 신년경제간담회를 주최하여 인도네시아 정·계 인사들과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류하고 한인 기업인들과 인니 명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을 하는 한편 정보를 공유하며 한인상공인의 목소리를 인니 정부와 재계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호영 대사를 비롯하여 상무관, 국세관, 관세관, 노무관, 건교관 등 모든 경제담당관이 참여하였고 승은호 회장과 송창근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상공회의소 회장단, 업종별 협의회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궁극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표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및 한인회 회장단, 업종별 협의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상업부 마리 장관은 2011년 인도네시아 국내외의 경제전망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전망을 전했으며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한인 기업인들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기업인들은 지역최저임금문제, 전력문제, 교통정체문제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

에 대해 마리 장관은 “정부에서도 전력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하며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마리 장관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와 교역 활동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한 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특징을 브리핑 하고 2011년 경제전망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정책 주요방향에 대해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와 포스코 등 투자기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명확한 비전, 그리고 견실한 경제정책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올 초 많은 경제전문가에 의해서 향후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할 나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은 2010년에 철강, 에너지, 농업, 신발, 섬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실현했다.

더욱 활발한 투자와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현재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상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마헨드라 차관 및 국제협력 담당관들이 다수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한국 투자자들과 가장 먼저 신년 하례회를 가진 점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투자자들의 위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회와 한인회가 함께 드리는 조찬기도회

“살흠,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

“교회가 연합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면

구호나 선교에 더욱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2011년 1월 10일 오전 7시30분, 레스토랑 한솔에서 신기엽 한인회 부회장의 초청으로 인니교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와 장로, 집사 그리고 한인회 임원이 함께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박윤길(참빛교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조찬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인사 및 조찬’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최진기(동부교회) 목사의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한인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좋은 뜻으로 응답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기도의 팔을 높이 들어 올리자는 믿음의 설교 후에 김재봉(땅그랑교민교회) 목사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와 송창근(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장로의 ‘인도네시아 교민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박기영(위자야한인교회) 목사의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로 이어진 이 조찬기도회는 박관구(안티옥교회) 목사의

축도로 숙연하고 경건한 분위기였다.

신기엽 한인회부회장과 최진기 한목협회장의 신년인사가 끝나자 장영수(한마음교회) 목사의 감사기도로 식사를 시작한 참석자들은 한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담 중에는 교회가 연합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면 구호나 선교에 더욱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한인사회가 더 거대해지기 전에 연합예배 등을 통한 구심점을 갖출 필요성 등 교민사회와 교회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에 뿌리내린 한인교회 40년, 선교 40년이 되는 올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선교를 위한’ 대대적인 기도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것이라는 계획, 각 교회의 개별적인 행사 계획 등 자연스럽게 정보가 교환되었다.



무엇보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정보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주체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 조찬기도회의 모임은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배워서, 불만을 갖고, 불만을 희망으로 변화시켜라”

부영그룹 이종근회장, 인니에 한국 졸업식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1만대 기증...

교육용 첼판 3만개도

“국가와 민속노래, 고향노래, 아리랑 등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오늘 행사를 계기로 몇 백 년이 흐른 후에는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동남아 각국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를 보급하는 등 ‘문화 전도사’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온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 피아노 1만 대와 교육용 첼판 3만 개를 기증해 ‘신 한류문화’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월 20일 수도 자카르타 소재 교육부 빌딩에서 개최된 이날 기증식 행사에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을 비롯해, 무하마드 누(Mohammad Nuh) 교육부 장관과 정부인사, 김호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학생과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린 학생들은 디지털 피아노에 저장된 한국의 졸업식 노래 반주에 맞춰 합창, 피아노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디지털피아노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와 노래를 비롯해 우리나라 졸업식 노래(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안 저장됐으며, 고향의 봄, 아리랑 등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곡들이 함께 수록돼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기증식 행사가 양국 간 친선과 우호협력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배움의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하마드 누 인니교육부 장관은 “오늘은 인니 교육부와 국민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욱 단단한 관계로 이

어질 매우 가치 있는 날이다.” 라고 답례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국가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지어 기증했고, 첼

판 50만 여개와 우리나라의 ‘졸업식 노래’가 담긴 디지털피아노 6만 여대를 기부하는 등 민간 문화교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이 기증사업은 앞으로도 필리핀,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등 주변국가에도 디지털 피아노와 교육용 첼판을 기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증식이 끝난 후 이 회장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불만과 희망은 두 개가 같은 것이다. 이 나라 학생들이 배워서, 불만을 가져서 희망을 갖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증을 하게 된 이유”라고 어린 학생들의 밝은 미래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회장의 이런 의지의 실천은 국가 이미지까지 밝게 전망되는 민간 외교의 커다란 성과이며 교민사회에는 한국인으로써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큰 의미를 지닌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프로골프단 “이루다” 탄생

MFS사 인도네시아 프로골퍼들과 후원 계약 체결



1월 1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프로골프협회(PGPI) 회장과 MFS골프의 전재홍 대표, 그리고 PGPI소속 선수 및 협회 관계자, 현지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골프클럽의 명가 MFS골프(대표이사 전재홍)에서 본격적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진출에 앞서 인도네시아 프로들과의 공식후원업체로 프로 투어 후원 계약식을 체결했다.

순수한 우리말 이루다에서 따온 “이루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프로골프단 구단주는 이학형 (주)세양대표, 감독은 김동욱프로가 맡았다. 이날 프로팀에 합류한 선수는 통상 60승 이상을 이룬 역대 상금순위 1위인 MAAN NASIM 과 2007년 상금랭킹 1위 등 통상 4승을 거둔 JUNAIDI, SARMILIH 등 정식 시드권을 확보한 11명의 인도네시아 정상급 선수들이다. 이들에게는 MFS사에서 제공하는 700만원 상당의 최고급 클럽과 골프의류 등 각종 용품은 물론 우승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선수들은 MFS사의 “OZIK” 과 “IRUDA” 의 브랜드를 착용하고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해야 하며 MFS사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게 된다.

이로써 골프 한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MFS사의 전재홍 사장은 “한국은 골프강국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는 한국의 우수한 골프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경쟁할 조건을 갖춰 나가야 할 때” 라며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골프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산브랜드를 선보일 좋은 기회로 만들겠다” 고 창단의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을 보는 시각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바라보듯이 골프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순한 프로들의 진출이 아닌 한국 골프 브랜드의 첫 진출이라는 면에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의 브랜드가 세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성공적 진출을 기대해 본다.



반질고리 퀼트 전시회

“퀼트를 사랑하는 벗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 대사관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반질고리 퀼트(김정옥)의 첫 전시회이며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도 처음인 퀼트 전시회가 열려 작은 생활용품에서부터 커다란 침대커버, 벽장식까지 100여 작품이 선보였다.

퀼트를 하며 행복한 이유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늘 미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들과 대화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김정옥씨는 “인도네시아의 무더위 속에서도 조각 천을 한 땀 한 땀 이어가면서 어울림의 아름다움과 서두르지 않는 여유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15년간 퀼트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반질고리 퀼트의 멋을 알아주는 벗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집가는 딸의 행복을 비는 엄마의 사랑을 담아 작은 바늘땀 하나하나에도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정성을 다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벗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하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 겸손하고 소박한 꿈 위에 단아한 웃음을 덧댄다. 이름을 써 넣지 않은 명함을 내미는 그에게서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마음이 퀼트 작품 하나 하나에 배어들어 정감과 온화함으로 전시장을 채우고 있었다.

인니기아대책 IFHI재단 자카르타 한인 교회의 재난구호금을 모아 먼타와이와 족자에 구호품 전달



인니기아대책 IFHI재단은 1월7일(금), 지난해 지진과 쓰나미 발생으로 이재민 만 오천 가구가 발생한 먼타와이의 SIKAKAP 지역과 화산폭발로 인한 족자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였다. 텐트, 농기구, 의복 등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일일이 조사하여 재단 측에서 제작하고 직접 구입한 트럭 2대 분 분량의 이 구호품 마련을 위해 인니동부교회, 사랑의교회, 주님의교회, 연합교회, 한마음교회 등 많은 교회가 재난구호헌금(Rp 211,948,000)을 모았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완일목사(주님의교회)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인니기아대책 IFHI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설립된 사회봉사단체이다.

자료제공 : 신창우 인니기아대책 재무담당



성찬 스님의 보로부두르 특강

“인도네시아는 문화의 뿌리가 깊은 나라이다.

문화를 아는 것은 뗏목을 타고 나가는 것, 많은 통로를 갖는 것이다.”

성찬 스님의 보로부두르 사원에 대한 강좌가 능인정사에서 열렸다. 1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연이어 열린 이 강좌에서 성찬 스님은 마음으로 보로부두르 사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성찬스님은 이 강좌를 마련한 이유를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업적인 주종관계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교민들 자신에게 진정한 보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곳의 교민들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여 현지인들과 잘 동화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찬 스님은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불교문화와 인니문화를 연결하는 주제로 강좌를 열고 있다. 성찬 스님의 강좌는 불교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흥미롭게 들을 수 있도록 열린강좌로 진행된다.

기자가 방문한 넷째 날의 강좌는 보로부두르 사원에 새겨진 120장면, 그 장면 장면에서 새겨진 의미와 상징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이어진 날이었다. 인도 신화를 모티브로 한 조각들을 분할해서 보는 방법, 표정을 읽고, 소리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 경이로운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보니 어느새 바라보기만 하던 이방의 세계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 그들 문화의 일원이 된 듯 한 일체감이 들었다.

문화를 이해하면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감은 몰랐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런 일체감이야말로 낯선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며 성찬 스님의 말처럼 뗏목을 타고 나가는 물길일 것이다.



한 . 인니문화연구원

제 9회 열린 강좌

주 제 : 인도네시아 문화의 이해와 이슬람

강 사 : 안선근 교수

일 시 : 2011년 3월12일(토) 10:00 - 12:00

장 소 : 한인회 문화회관

제193회 문화 탐방

일 시 : 2011년 2월 19일(토) 8시 - 17시 (한인회에서 출발)

탐방지 : 순다 끌라빠 항구 / 깎뽕 루아르바탕 / 감옥역사박물관 /
와양박물관 / 카페 바타비아 외

연락처 :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인도네시아 자유총연맹 제1회 교민 나라사랑 한마음 강연회

1월 27일,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회장 박동희)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최상관 교수를 모시고 ‘교민 나라사랑 한마음’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최상관 교수는 “아직 전시체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는 정신무장을 늦추지 말고 확고한 임전태세로 군과 민이 합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시대를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 이라고 국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교민들 역시 정신무장과 합심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연회를 준비한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이태복 부회장은 “이국땅인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항상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강연회를 통하여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나라 사랑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똑바로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말했다.

직스 교사 퇴임식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한 저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정년퇴임 : 사공경(사회)

퇴 임 : 성윤경(수학), 정양숙(과학)

한국이직 : 김미영(영어), 김재윤(수학), 이현주(국어), 양미숙

직스 고등과정 교사의 퇴임식이 1월 26일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젊음을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물러나는 자리이거나, 또 다른 환경에서 학생들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게 될 교사들을 위한 행사였다.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은 사공경 사회과교사는 이 자리에서 리기다소나무와 조선소나무의 예를 들어 꿈에 목마른 사람,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를 갖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내용을 담아 참석자들에게 퇴임인사를 했다.

이직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불꽃같은 삶의 시간이 어디에서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자신만의 꿈에 도전해보시기를 바란다.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브라위자야국립대학교 졸업식 한국학생 장상아양 법대 수석 졸업의 영광 차지

1월 22일 토요일, 브라위자야국립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동부자바 말랑시에 위치한 브라위자야대학교는 1957년 최초로 단과대학으로 법대가 설립되었고 1963년 국립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대학교이며 법대가 유명하다. 1,500여명의 교수와 39,000여명의 대학생 중에 100여명 교수와 2,000여명의 법대학생들이 법대 소속이다.



졸업식은 대학교의 전체 졸업식과 학과별 졸업식으로 나뉘어 거행되어, 전체 졸업식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과 졸업식 날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고 졸업생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학생은 한국 학생 장상아 양이었다. 졸업식 때 전통 복장을 하기로 한 학교의 방침에 따라 장상아 양은 한복을 입고 졸업식장에 참석하여 이 나라 전통 복장인 꼬바야 속에서 이채를 띄웠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는 민간외교를 톡톡히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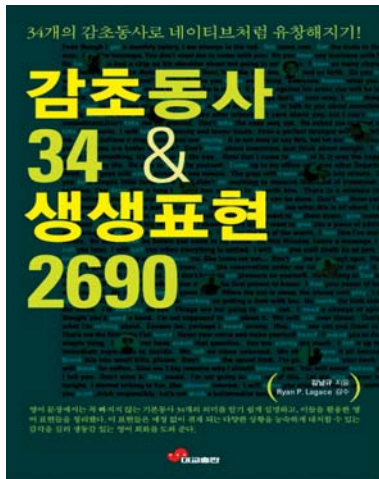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직접 및 간접적 경험하면서 이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법대를 지원했다” 는 장상아 양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고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브라위자야대학교측과 말랑쁘스에서 장상아 양과 인터뷰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다.

Set up a Database! Feel the Power of 34 Verbs!

시간안내

34개의 동사가 만들어 내는 2690개의 생동감 있는 표현!



당신은 지금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문법을 총동원하여 문장을 만들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이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있다. Body Language로 넘어가기엔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다. 이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로 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방대한 양의 database를 뇌에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 김남규 지음 / Ryan P. Lagace 감수 / 정가 14,000원
- 독자 대상 : 대학생, 직장인, 성인

지은이 김남규

1979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 American Express, 씨티은행, FILA 인도네시아 책임자를 거쳐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일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동포 자녀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에서 지역 순회 실시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가 인도네시아 동포 자녀들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는 교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한나프레스의 정선 사장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 700명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던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는 2011년에도 1월 초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끌라파가당, 땅그랑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인도네시아 산업의학회와 더불어 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포함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에는 짜까랑, 자카르타, 보고르 지역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1월 22일은 땅그랑 지역의 한 교회에서 건강 검진이 있는 날이었다. 오전부터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나 현지인들도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어머니는 자녀 둘을 데리고 와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인도웹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면서 건강검진을 받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교민의 경우 실제 질병으로 의심될 정도의 소견은 지금까지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판명을 받았을 때 그 이후가 문제라고 한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한 관계자의 근심어린 조언이었다.

현지인들은 질병이 판명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교민들은 일반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그나마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에서 교민 자녀들의 건강을 검진해주려 의료진과 의료기구들 들고 나섰으니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랑의 전화 운동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haninpost.com, 전화는 021-4586-9199이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회 열린강좌 개최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숭바섬의 지식묘 사회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주관으로 제8회 열린 강좌가 1월 30일 한인회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강좌의 주제는 ‘인도네시아 지식묘와 한국의 지식묘’였으며, 이 강좌를 위해 우리나라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기꺼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주었다.

사공경 원장은 “한·인니문화원의 강좌가 낯선 언어와 풍경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고 감동으로 이어져 우리 삶의 정서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좌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서 임영진 전남대 교수의 ‘인도네시아의 선사문화와 지식묘’에 대한 기초강연이 있었고, 가중수 일본 슈지츠대학원 교수, 조진선 전남대학교 교수, 윤호필 경남발전연구원, 이동희 순천대학교박물관 학예관이 한국과 숭바섬 지식묘 연구에 대한 의의 및 과정을 소개했다.

조진선 전남대 교수는 ‘숭바섬 지식묘의 확산과정과 사회변동’을 주제로, “지식묘의 형태적인 확산과정은 기후 조건과 계층분화에 의한 변천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연히도 그 지역의 전설과도 일치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동희 순천대학교박물관 학예관은 “지식묘가 한국은 열상배치가 많고 주거공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반면, 숭바섬은 환형배치가 많고 주거공간 안에 자리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아마 사자에 대한 의식과 개념의 차이에서 온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호필 경남발전연구원은 “지금도 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숭바섬 고인들의 축조 사례는 한국 고인들의 장송의례를 재검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고학계에 남겨진 숙제를 푸는 일에 숭바섬의 의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조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1988년부터 시작된 숭바섬의 지식묘를 연구하기 위해 일 년의 두 번, 두 달씩 인도네시아에 머문다는 가중수 교수는 한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의의를 전해주었다.

.....

– 특별히 인도네시아 숭바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는 굉장한 문화유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발굴하고 연구할만한 학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학자들이 나서서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사를 찾아나서 기록으로 남겨준다면 후일 이들이 틀림없이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식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지식묘의 남방유입설에 대한 교수님 견해와 이 연구에 대한 목적을 유입경로에 대한 학설과 연관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북방에는 쌀문화와 지식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식묘문화가 남방유입이나 북유입설이나 하는 원류를 알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지식문화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지식문화의 연대를 추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지식문화의 고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 지식묘 사회 숭바섬’을 통해서 우리 지식묘 사회의 뿌리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자들 간의 특수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국의 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학문의 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교민사회에도 양국간 문화의 친근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숭바섬석주식지식묘



한국(영광)석주식지식묘

상식과 편견을 넘어

정선영 (AIS 10학년)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난 사공경 선생님이 이끄시는 찌위데이에서 가룻까지 이틀간의 여행을 다녀왔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고 자카르타에서 버스로 3시간 동안의 이동을 한 뒤, 찌위데이의 '가와쁘띠' 라는 호수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강한 바람이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항상 한국의 겨울을 그리워했는데 이곳에서 차가운 바람을 원없이 느꼈다.

호수에 도착해서 보니 그 풍경에 정말 놀라웠다. 이동하는 차에서 사공경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땐 그저 여태까지 보아 온 평범한 호수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호수의 물빛은 희뿌옇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에메랄드 빛의 바다를 연상하게 하고, 호수 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물의 온도도 따뜻했다. 안개 사이에서 선녀가 나타날 것만 같은 풍경이었다.

그 호수에는 종종 안개가 피어 있다고 하는데, 호수 바로 위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안개는 마치 그 호수가 안개를 뿜어내는 것 같았다. 물가에 구불구불서 있는,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나무들은 물빛과 어우러져 완벽한 풍경이었다. 또 이곳 호수의 물엔 유향이 많이 들어 있어 호수로 가는 계단에서도 강한 유향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이번 여행에서 찍은 가와쁘띠 호수의 사진을 다시 봐도 그 때 그 느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 바람과 그 안개와 호

수의 유향냄새는 '느끼는'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꼭 한번은 다시 들러야겠다.

황홀한 가와쁘띠 호수를 보고, 점심을 먹고 가룻에 도착해 대나무 배위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배가 이동하는 동안 악단이 대나무 배위에 올라 노래와 연주를 했는데, 싸구려 기타와 PET병으로 만든 악기로 연주를 했지만 정말 훌륭했었다. 내가 한국의 대중음악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역시 live 음악의 감성은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 같다.

저녁을 먹고 바틱 집에 잠깐 들렀다가 호텔에 체크인하고 멀미와 피곤함 때문인지 바로 뺏어버렸다.

다음날, 웬일인지 아침 5시 반에 눈이 번쩍 떠졌다. 일어나 온천수가 나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엄마와 같이 아침산책을 했다. 어제 어두워 보지 못했던 호텔 풍경이 너무 예뻐다. 연못 위에 떠 있는 수수한 연꽃들, 연잎들 그리고 잠자리들을 구경했다. 호수 주변으로 나 있는 오솔길도 마치 숲 속에 온 듯한 느낌을 줘 너무 예뻐다.

산책을 마치고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차에 올라 조금 가다가 양철성이라는 한국인이었지



만 인도네시아 독립군이었던 영웅의 묘를 찾았다. 외국인이었지만 인도네시아를 위해 싸우고, 인도네시아를 위해 싸우다 생을 마친 양철성 장군에게 놀랐다. 사실 나도 이번 문화여행을 통해 양철성 장군을 처음 알았지만, 이제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양철성이라는 용감한 장군을 더 알고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다.

양철성 장군의 묘를 보고 차로 몇 시간 이동해 나가(NAGA)마을에 들렀다. 전통을 중시하는 이 마을의 집들은 모두 흰색 벽에 검정색의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크기의 집들 뿐인데, 그 법칙은 이곳 주민들의 평등을 상징한다고 한다.

마을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발견한 순간 매우 당황스러웠다. 천장도 뽕 뚫러 있고, 문도 없고, 바닥은 대나무로 되어있어 미끄럽고 그 밑은 강물이 흘러 밑을 보기 아찔했다. 누가 볼까 이중망을 세워 놓고 빨리 볼일을 봤다. 그런데 이곳이 빨래터로도 쓰인다니 그땐 그야말로 켄치쇼크였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가장 깨끗해야 할 곳과 가장 더러운 곳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런 ‘상식’도 단지 편견일 뿐이란 걸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상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전기도, 자전거도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것이 싫어서 마을을 나가기도 한다. 사실 나도 여기에서 살라고 한다면 며칠 만에 뛰쳐 나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욕심없이, 주민들과 어울리며 전통을 지켜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아름답

고 또 한편으론 친근하다.

나가마을의 엄청난 길이의 경사 계단을 오르고 차로 조금 이동하다 내려 호수 위에서 점심을 먹었다. 음식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호수를 바라보며, 호수 위에서 먹는 점심은 특별했다.

점심을 먹고 Kawah Kamojang 화산으로 이동해 화산에서 올라오는 스팀을 쬐는 체험을 했다. 진짜 화산에서 나오는 수증기라 그런지 10초도 못 버티게 뜨거웠다. 산에서 나오는 연기도 구경하고 땅 속의 마그마 때문에 데워진 풍풍 솟는 물도 구경했다. 사화산이 아닌 실제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산은 처음이라 사실 화산이 폭발할까봐 조마조마했다. 많이 무서웠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학

교에서 이런 화산에 수학여행을 올까?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저녁 식사를 했다. 배를 타고 식당 쪽으로 건너 가는데 물 위에 있는 리조트들과 그 옆에 있는 작은 배들, 그 풍경이 너무 매혹적이었다. 식당의 밥은 맛있었고,분위기, 주변 풍경들도 너무 예뻐다. 한 쪽은 대나무 숲, 한 쪽은 호수, 한 쪽은 정원...



가룟 양철성 장군 묘지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차에 타 돌아가는데 너무 아쉬웠다. 문화탐방이 아니면 이런 장거리 여행, 고급 콘크리트 호텔이 아닌 풍경이 예쁜 호텔, 이색적인 인도네시아는 경험하지 못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자카르타의 교통체증. 매연에서 벗어나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여행을 떠나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다. 다만 첫 날에 몸이 안 좋아 인도네시아를 많이 느끼지 못한 것이 한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문화탐방의 여행에 참가하고 싶다.



폴

Paul

사람들은 그를 폴이라고 부른다. 처음 그 이름을 듣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한 번 이름을 되뇌인다. 폴?

폴, 서광중 목사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말랑에서 음악교수로 재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폴이라는 이름은 그 자신의 소망과 서원을 담은 이름이라고 한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소망을 품었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하고 또 묻게 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셨고 자연스럽게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다. 암으로 돌아가신 누님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실체를 보고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던 그에게 확고한 소명이 전해졌다.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폴(바울)을 닮고 싶었고, 드디어 그에게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오게 된 곳이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

지만, 반면에 너무나 바쁘고 고된 시간 끝에 얻어지는 보람을 알게 해준 날들이었다. 람풍 지역의 개척 교회들을 돌아보다 그 곳 성도가 대접한 삶은 바나나를 먹고 종일 설사를 하기도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계속되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며칠씩 앓아눕기도 했다. 신학교에 들어오기까지 피아노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학생이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할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교회 반주자가 되는 모습,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는 도저히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보이던 사람이 훌륭한 교회성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과 더 큰 열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 무렵, 장기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서는 교회음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그는 미국에서 교회음악 수업을 시작했다. 이미 40을 넘긴 나이에 미국에서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로 돌아오기 위한 소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는 그가 받은 소명의 전부였으며 그가 약속한 서원의 전부였다. 그곳 뉴올리온즈에 있는 동안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만나 인도네시아로 가고 오려고 모아 놓았던 꽤 많은 분량의 음악자료들

(책, 음반 등)이 물에 잠겨 전부 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 번 깨달음을 얻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얼마나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가.’

결국 그는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왔고, 현재 말랑에 위치한 SAAT (Semnari Alkitab Asia Tenggara, 동남아성도신학원)에서 교회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2011년 가을학기부터 교회 음악가를 키우는 새로운 과정이 개설되면 인니교회들에 필요한 교회음악가들, 특히 음악목사를 키우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기초 작업으로 그는 현재 20명의 학생들에게 성악훈련을 시키고 있고 학교성가대를 맡아서 지도하고 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 인생의 끝에서 하나의 소망을 보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 향한 열망이었어요.

왜 선교사가 되셨나요?

- 우리 인생의 소망은 결국 주님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이름을 Paul이라고 지으셨어요?

- 어두움의 끝에서 하나의 소망을 보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용기와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폴 목사의 하루하루 삶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남모르는 봉사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나 이상은 높고 크게 가질 수 있다. 말로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앙고백을 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말을 실천하며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커다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기독교신자이든 아니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인간애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에게서 오는 오직 그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



서 광 중 (교회음악박사)

생 일 : 1958년 10월 18일생

거주지 : Jl. Bukit Hermon 1

Tidar Atas, Malang 65151

현 재 : 인니선교사, 음악교수



자동차 도난사고와 관련한 운전기사 채용 시 주의사항

최근 교민사회에 차량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신규 채용하실 분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게시된 이력서양식 하단부의 첨부서류(Lampiran)들을 완비할 수 있는 현지인에 한하여 고용여부를 검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운전기사 신규채용 시 주요 첨부서류

1. Surat Lamaran Kerja: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자필구직서” 정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자기소개서”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정말 기사취업을 원하는 자라면 본인을 소개하는 편지를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Asli & Fotocopi KTP / SIM A: KTP의 경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위조본을 소지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의심이 될 경우 직접 경찰서에 가서 원본증명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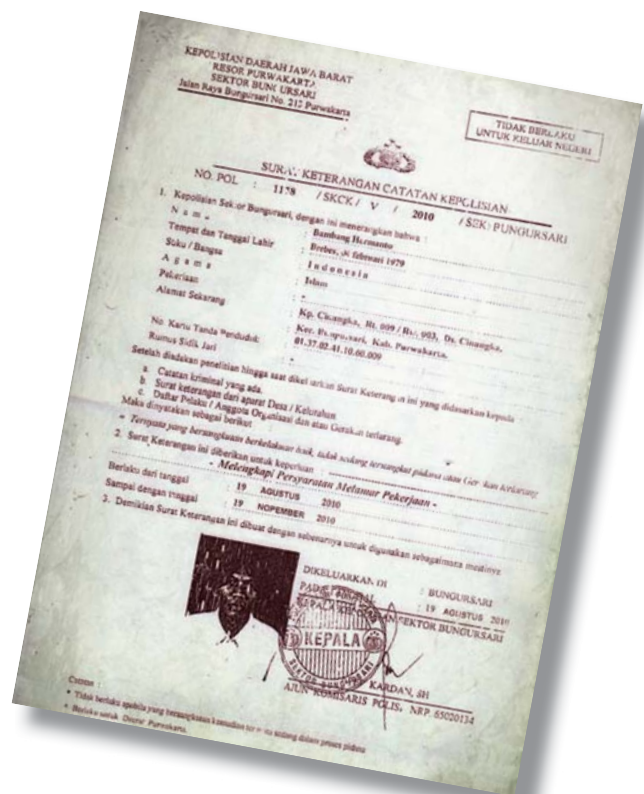
3. Fotokopi Ijasah Pendidikan Terakhir: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의 개념입니다.

4. SKCK(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KTP 및 SIM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서류로서 경찰서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전과기록 또는 그에 준한 범법사실이 있는 자는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라고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로서 꼭 떼어오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5. Surat Keterangan Alamat Tinggal dari Kelurahan / RT.: Kartu Keluarga(우리나라 주민등록

북등본과 유사)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지점에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대체서류로 현거주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동장(Ketua Kelurahan) 또는 통장(Ketua RT)의 거주확인증명을 스탬프와 함께 받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필수 첨부서류로서 꼭 떼어오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6. SKS(Surat Keterangan Sehat): 건강증명서 또한 의사로부터 쉽게 발급받아 올수 있는 것으로서 필요하다면 채용 후에도 건강검진비용을 대어주고 다시 받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겠지요.



피고용인의 자동차도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하셔야 할 사항

1. 제 발로 찾아와 기사채용을 원하는 어떠한 현지인에게도 그냥 열쇠를 건네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빨랑’ 했다고 하는 이모씨, 김모씨, 박모씨 등을 거론하며 근무경력을 자랑하는 현지인은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2. 맨 먼저 상대방의 신원파악을 위해 명함판 크기 이상의 컬러사진을 부착한 이력서(CV)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이력서의 전근무지 란에는 고용인의 이름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입하게 하고 면접 시에 전근무지 근무사실 및 근태현황을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특히 한국인집에 근무경력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는 등 진위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귀국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현지인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령 등의 사유로 돌아가야 하는 한국인은 귀국 전 고용기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사의 근무성적이 평균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찾아와서 주인이 한국에 ‘빨랑’ 했다고 말하는 현지인은 운전기사로서의 근무성적이 평균이하이든지 ‘잠재적인 도둑’ 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고 보시면 됩니다.
5. 전근무지를 비롯한 신원파악이 되고난 후에는 최소한 KTP 원본 및 SIM(운전면허증) 원본을 확보한 후 본인이 탑승하여 시험운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KTP(주민등록증)도 가짜 분실신고를 거쳐 신규 KTP를 보유한 상태에서 옛날 KTP를 지니고 있다가 주인이 요구하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6. 시험운행 도중 차와 기사를 둔 채 내려서 불일을 보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물론 운행종료 즉시 자동차 열쇠부터 회수하고 돌려보내야겠지요.
7. 시험운행 도중 기사의 태도 및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태도를 보이는 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8. 시험운행 종료 후 채용의사가 있을 시 가장 먼저 원하는 급여조건을 물어봅니다. 범행의도가 있는 현지인은 대체적으로 급여수준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급여 130만루피아 + 오버타임 등을 제시했을 때 고용인 측에서 100만 루피아 이하의 선을 제시해보면 됩니다. 이때 조금 망설이는 척하다가 그냥 흔쾌히 수용하는 현지인은 거의 범행의도가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절대로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급여문제에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측이 믿을 만한 현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가지요.

9. 채용을 결정했으면, 좀 귀찮기도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유한 카메라로 본인의 허락을 득한 상태에서 사진(가급적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을 배경으로 한다면, 주변 현지인, Satpam 등과 같이 찍는 방법으로)을 찍어둘 것을 권합니다. 일종의 위력시위로 기사의 범행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0. 차량 STNK(운행증)는 복사본을 차량에 비치하고 원본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 탑승자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사들은 대부분 ‘경찰검문이 있을 때 원본이 없으면 안 된다’ 며 원본비치를 고집하는데 ‘네가 운전을 조심해서 교통위반으로 걸리지만 안으면 된다’ 고 거꾸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최근 소문에 STNK 원본과 함께 도난당한 차량은 현지 전당포에서 매우 쉽게 그리고 웃돈을 더 받고 팔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 비치를 끝까지 고집하는 기사는 잠재적인 범행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11. 시험운행 후 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더라도 KTP 및 SIM(운전면허증) 원본은 소유주가 직접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라미네이팅하여 본인에게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본을 맡기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기사는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도난사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문제

보험가입자의 피고용인(기사, 회사직원, 가정부 등)의 소행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보험사 및 경찰서 통보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보상처리가 진행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소요건은,
 - # 자동차 원본 Key(보통 2본)를 보존하고 있을 것.
 - # STNK 원본을 확보하고 있을 것.
 - # 도난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운전기사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을 것(즉, 근무하고 있을 것) 등입니다.물론, 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 접수 후 ‘도난확인서’ 를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고용인의 정의

피고용인이란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근무 중인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기사로 고용할 목적으로 단 한차례라도 시험운행을 시킨 임시기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 차를 운행케 할 목적으로 자동차열쇠를 건네준 모든 사람은 나의 피고용인 에 포함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기사의 퇴직사실을 알고 취업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전문범죄인이나 차량소유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가정부가 믿고 열쇠를 건네준 이웃집 기사도 나의 피고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 피고용인, 즉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채용직후(3일 이내) 많이 발생(표적도난)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 평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럴만한 정황이 포착되기 마련입니다.

즉,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한다든지, 갑자기 집안사정을 핑계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부쩍 결근이 잦아진다든지 하는 정황이 발생하면 예비범죄자의 가능성을 두고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임이 입증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은 동일한 보험약관을 통하여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보험사 자체적으로 본 조항을 수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음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보험사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사 공동으로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할증보험료를 부과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수차 검토한 바 있으나, 보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공익성 추구”에 대한 위배라는 해석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고 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실적(연간가입규모,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Ex Gratia(특혜보상)의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확인서를 상호 목인 하에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강화된 자동차보험 인수규정상 보험사 또한 위법행위로 적발되어 문책을 당할 소지가 있어 피고용인의 소행이 명백한 자동차 도난사고는 보험에 의한 보상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동포안내문

출국세 제도 폐지 안내

1.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출국세(Fiscal Tax) 제도가 2010.12.31부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1.1부로 출국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그동안 출국세 납부대상자가 출국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대사관에서 ‘가족관계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아 공항에 제출하였으나, 2011.1.1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출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기사 채용 이력서 양식

FOTO (4 X 6 cm)	CURRICULUM VITAE (DAFTAR RIWAYAT HIDUP)			
	NAMA LENGKAP		NO. KTP	
			NO. SIM	
			NO. H.P	
TEMPAT LAHIR		TANGGAL LAHIR		
ALAMAT TINGGAL (No. Telelepon)				
ORANG-ORANG TINGGAL BERSAMA (No. Tel & H.P)				
◆ PERSONAL HISTORY (DATA PERSONAL) ◆				
Tanggal/Bulan/Tahun	PENDIDIKAN FORMAL			
Tanggal/Bulan/Tahun	PENDIDIKAN NON FORMAL (KURSUS) & KETERANGAN LAIN			
Tanggal/Bulan/Tahun	PERUSAHAAN / RUMAH KERJA (NAMA PEMILIK) SEBAGAI PENGEMUDI & ALASAN BERHENTI KERJA			ALASAN
	TEMPAT KERJA (NAMA PEMILIK & No. Tel.)			
↔	ALASAN BERHENTI KERJA			
	TEMPAT KERJA (NAMA PEMILIK & No. Tel.)			
↔	ALASAN BERHENTI KERJA			
	TEMPAT KERJA (NAMA PEMILIK & No. Tel.)			
↔	ALASAN BERHENTI KERJA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correct and true.				
(Pernyataan diatas adalah benar dan dibuat dengan sebenarnya)				
Nama:				(Tanda Tangan)
<LAMPIRAN>				
1. Surat Lamaran Kerja		5. Fotocopi Ijasah Pendidikan Terakhir		
2. Asli & Fotocopi KTP		6. SKCK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dari Polisi		
3. Asli & Fotocopi SIM A		7. Surat Keterangan Alamat Tinggal dari Kelurahan/RT.		
4. Pas Foto Ukuran 4 X 6 cm 2 Lembar		8. SKS(Surat Keterangan Sehat) dari Docter		



박관구 (안디옥교회 목사)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리 인간과 조류, 어류를 포함한 동물, 그리고 식물 등 크게 3종으로 분류되어진다. 이중에 인간과

동물은 소비주체이다. 식물만이 인간과 동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생산주체이다. 식물은 심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꽃피우고 열매 맺는다.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 자리이건만 그 자리가 싫다고 불평하거나 옮겨가지 않는다. 그리고 식물은 공을 들인 만큼 보답한다. 결코 사람처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 생각해보면 식물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이 식물을 함부로 대한다. 말을 못한다고, 아무런 방어를 못한다고 마음대로 할퀴고 꺾고 자르고 찢어내고 뽑고 죽인다. 그러나 식물에게도 느낌이 있고 아픔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세기 최고의 식물재배가라는 캘리포니아의 루터버뱅크는 식물에게 20가지가 넘는 지각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피터 톰킨스는 식물의 신비생활이란 책에서 실험결과 식물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피한다고 주장한다. 식물을 대함에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35만여 종의 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재배해서 먹고 있는 것은 약 3천 종에 이른다. 나머지 34만 7천 종은 잡초로 분류되어 방치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종류들이다. 잡초란 한마디로 아무 유익이 없는 잡스러운 풀이다. 원치 않는 장소, 잘못된 자리에 난 귀찮은 풀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부당한 구분이다. 쓸데없이 그 자리에 있는 잡초는 하나도 없다. 자연이, 그 땅이 필요해서 잡초를 그 자리에 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잡초들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땅을 비옥하게 한다. 어떤 풀들은 공기 중의 무기물질을 흡수해서 토양으로 보내주기도 한다. 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풀들을, 잡초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풀들을 잡초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야생초라 일컫는다.

이 잡초/야생초들 중에는 우리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일으키는 풀들이 엄청나게 많다. 한방약재로

쓰이는 황금, 뛰어난 약효를 지닌 민초 까마중, 흰즙을 내서 벌레 물린 데나 상처에 바르면 즉효인 땅빈대, 정력에 효과가 있다는 왕고들베기, 거담에 효과가 있으며 자양강장제로 쓰이는 마뿌리, 신체 광범위한 부분에 약효를 미치는 팽이밥,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는 장명채, 쇠비름, 이외에 명아주, 구절초 등 일일이 이 지면에 읊길 수 없을 정도이다.

비단 병약자가 아니라도 한 번 이 야생초에 맞들리게 되면 일반 채소는 싱거워 맛이 없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이야기이다. 모든 영양과 맛의 정수가 모두 이 야생초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고갈되어 가고 있는 천연자원의 대체물을 이 야생초속에서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야생초로부터 희귀질병의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보도도 잇따른다. 야생초는 창조주가 천지에 지천으로 넣어놓으신 보물인 것이다.

야생초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끈질긴 생명력과 근성이다. 야생초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심지어 바위 위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간다. 이 야생초들을 관찰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지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 식물학자들의 말이다.

야생초의 세계를 관찰하노라면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세상은 일정한 공간에 규격화되고 길들여진 사람만을 선호한다. 공간이나 규격을 벗어나는,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잡초로 간주되어 배척된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되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영양과 맛이 녹아있는 야생초들이 많다.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재, 천연자원의 대체재, 희귀질병의 치료제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다. 인간의 무능과 무지로 인해 아직 그 유용성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야생초보물들이 이처럼 유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잡초인생들이여! 힘을 내시라! 여러분은 그 유용성과 효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 야생초에 다름 아니다! 잡초와 같은 야생 특유의 근성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바위조차 뚫어 뿌리를 내리고 지경을 넓혀 가시라! 머잖아 그 유용성이 발견되어 귀히 여김 받는 날이 오리니!

잡초인생 예찬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영혼이 머문다는 세 가지 색깔의 호수, 끌리무뜨



사진에 등장하는 돈은 RP 5.000짜리 지폐이다. 지금은 통용되지 않지만 내가 1998(?)년 처음 인도네시아 도착했을 때 내 손으로 처음 만져본 인도네시아 돈이라서 나는 마치 행운을 가져온다는 2달러짜리 지폐처럼 아끼며 화장대우리 밑에 끼워 보관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5천 루피아의 값어치조차 몰랐지만 지폐 뒷면에 인쇄된 산 위의 호수마다 색깔이 다른 끌리무뜨호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5천 루피아 지폐를 사용할 때마다 언젠가 내가 지폐에 인쇄된 끌리무뜨 호수에 가보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돈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끌리무뜨에 가보리라 하였던 내 꿈은 결국 이루어졌다.

플로레스 섬, 엔데(Ende) 모니로 가면 세 가지 빛깔을 내는 끌리무뜨호수로 갈 수 있다. 수많은 리오 족들이 살고 있는 모니를 거쳐 뻘모(Pemo)마을에 도착하면 그곳이 바로 끌리무뜨 산자락이다. 끌리무뜨(Kelimutu)는 그 지방언어며 ‘끌리(Keli)는 산’, ‘무뜨(Mutu)는 타다’ 라는 뜻이라 했다.

끌리무뜨 호수를 보면 셋 중에 하나는 위치가 약간 떨어져 있고 둘은 팔짱 끼듯이 나란히 붙어있다. 호수마다 빛깔도 다르지만 이름과 그 의미 또한 다르다.

뻘모에 사는 리오족들은 지금도 끌리무뜨 산에 잠재하는 자연의 힘이 아주 강하며 자신들이죽으면 영은 반드시 끌리무뜨 호수로 간다고 믿고 있었다.



▲ 호수 띠우 아따 뿔로)띠우 아따 뿔로(Tiwu Ata Polo) 색깔이 수시로 변한다. 내가 갔던 그날도 오전에 비취색이던 것이 오후에는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주로 악한 영혼과 사고로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한다. 이 호수에는 물빛이 현란해서 가끔 관광객이 빠져 죽기도 한다.

끌리무뜨는 꾀데라투(konderatu)가 지키고 있는데, 리오족의 말로 꾀데(Konde, 아들(지킴이), 라투(ratu, 아버지(수호신))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다. 호수는 꾀데라투가 지배하며 리오족들로부터 수호신으로 섬김 받고 있다. 뻘모 촌장은 사

람이 죽었을 때 꾀데라뚜가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예전에 마을의 한 노인이 죽은 지 이들이 지나 마을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땅을 파고 시체를 넣어 흙을 덮으려는데 노인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다고 했다. 그 노인이 누구네 고조할아버지였는데 그 후에 몇 년을 더 정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며 아직도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듯 내게 설명하는데 신명이 났다.



▲ 띠우 아따 부뿌(Tiwu Ata Bupu) 예전에는 하얀색, 지금은 초콜릿색이다. 선하고 수명을 다한 영혼이 머무는 곳.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설마?’ 하는 눈빛을 띄우니까,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획 둘러 봤다. 촌장과 눈빛이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진실 된 이야기를 너는 왜 안 믿느냐’ 식의 눈길들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꼬질꼬질한 받침대 위에 이 빠진 찻잔의 커피를 받아 놓고 마실까 말까 망설이던 참이었는데 ‘이때이다!’ 싶어 얼른 한 모금 꿀꺽 삼켰다. 그리고 “아, 그러세요.” 하며 고개까지 끄덕여 그들에게 공감을 표시했다.

삐모사람들은 끌리무뚜 산자락에 살고 있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그들은 행사 때 뺨처럼 생긴 플로레스섬을 상징(X찬양)하듯 일자로 줄을 늘어 섰다가 뺨이 또아리 트는 모습으로 뺨춤을 쳤다.

그들 삐모의 리오족은 대부분 가톨릭신자들이지만 발리 너삐와 비슷하게 일 년에 한 번씩 삐레(Pire)를 행한다. 5일 동



안 삐레 기간 중에는 밭에 나가 일하지 않고 3일 동안 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내년의 풍년을 위해 기후를 알아보는 방법 또한 독특했다. 살아있는 닭의 허파를 조여 죽인 후 닭똥이 물똥이면 일 년 내내 비가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건기가 길다고 점친다고 했다.

우리가 그곳에 갔던 날 그들은 중턱 큰 바위에서 간단한 제를 지냈다. 산 입구를 지키는 삐러콘데(Pere Konde)에게 입산을 허락받으며 무사히 호수에 다녀오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다. 스사지(Sesaji)로는 스리삐낭(Sri pinang)과 돈 일만 루피아, 담배 한 갑이었다.



▲ 띠우 누아무리 꼬파이(Tiwu Nuamuri Kofai) 비취색으로 아주 맑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

만약에 끌리무뚜에 갔을 때 안개가 자욱하여 호수가 안 보이면 그글은 끌리무뚜 수호신인 꾀데라뚜를 불러서 “꾀데라뚜 꾀데라뚜 당신 계신 호수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면 안개가 걷힌다고 했다. 그들의 말이 정말인지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마침 끌리무뚜에는 안개가 덮여 있었는데 삐모 사람들이 큰소리로 기도를 하자 꾀데라뚜가 들었는지 호수를 덮고 있던 안개를 거두어 호수 밖으로 내 보냈다. 그 순간 호수는 마치 거대한 비취덩어리가 되어 짙은 파란 빛으로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 모든 걸 지켜보았던 나는 우리를 안내한 삐모사람에게 물었다. “꾀데라뚜는 꼭 리오족 언어만 알아듣나요? 나 같은 외국인 하는 기도 말을 모르면 어찌죠?”

동행했던 관광청 직원이 한참 웃더니 대답해 주었다. “기도는 언어가 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 안개가 걷히기도 하고 안 걷히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글썸다. 어쨌든 나는 언젠가 내가 가보려 했던 끌리무뚜의 황홀경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얻었다. ■■■



채무보증법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개인적으로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식, 형제 혹은 친구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한인간의 인간관계이나,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직원이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Personal Guarantee)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경우를 종종 본다. 필자가 아는 전문 경영인 중에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미 수년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해 채무 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다른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아예 포기하고 영구 귀국 해버렸다. 또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이 개인 채무보증인을 계속 찾고 있다. 채무보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정신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손실을 면하기가 힘들다.



1. 채무보증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이행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법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2.1. 채무보증은 종속계약이다.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증도 있을 수 없다.

2.2.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무가 없다(보증인의 최고 항변권)

2.3.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루피아인데 채무보증은 2억 루피아로 할 수 없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우에는 원금,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2.4.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2.5.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

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2.7.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2.8.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2.9.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2.10.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항변권이 없다.

3.1. 보증인이 최고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3.2.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3.3.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3.4.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3.5.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4. 채무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4.1.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민법 제1840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4.2.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인의 구상권),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4.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4.3.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4.3.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4.3.3. 채무가 만기된 경우

4.3.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5.1. 빌리는 돈을 갚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왕왕 덤으로 특정인의 연대보증, Personal Guarantee와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 포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가고 있으며,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5.2.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에 연대보증, Personal Guarantee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 포기까지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채무이행 보장을 받게 된다.

5.3. 채무자는 채무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보증인의 입장은 다르다.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사주가 아닌 직원의 신분이 사람은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가 연체되면 회사 책임자는 물론이며 보증인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이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보증인은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 어려움으로 회사의 사주는 회사의 주인인 아닌 임직원이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서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DO



설 날이면 멀리서 오실 일가친척 맛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엄마와 작은 어머니들은 하루나 이틀 전에 모이셔서 전도 부치고 식혜도 만드시고 잡채와 각종 명절 음식들을 준비해 집안이 분주하고 음식으로 한 집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릴 적 명절은 어른들께 인사하고 용돈받고 또 새 옷을 장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쉬는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차례는 돌아가신 분들께 설날 세배는 살아계신 어른들께 드림으로써 공경을 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니 이제 이런 명절은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며칠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오셔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기르고... 얼마전 지인이 페이스북 북에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구정(Hari Imlek)기념으로 출입구에 큰 부채를 펼쳐 놓은 듯 한 장식을 보고 엄마가 '와, 이쁘다!' 라고 말하자 딸 아이가 'Chinese New Year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지만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우리 또래들은 설날 또는 구정이라고 기억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다국적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우리네 2세들에겐 Chinese New Year가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설날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설날은 '뫼살' 할 때의 '나이', '낫살다' 할 때의 '새로움'에서 왔다고도 하고, 최남선 선생은 '삼가다, 조심하다'는 뜻이 어원이었다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설 명절을 보낸 우리에게 설날은 왠지 찬바람도

불고 때론 눈 내린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찬바람도 눈 내린 길도 걸을 수 없지만 설 첫날 매사에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 대신 이웃사촌들과 또는 친구, 동료들과 행여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삼가하고 축복 어린 말로 맞아주며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날씨 보다 더 따뜻함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설날 되시길 바라며...

Cinta sejati [사랑을 믿어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 수 있는 관계인 부부생활상을 반영한 주말 드라마 '결혼해주세요'가 종영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사랑" 이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 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사랑" 이다.
그 이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아직도 사랑할 게 많은 기쁨,
그것 밖에는...

그래서... 이 외롭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고 지친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난... 그냥... 사랑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믿어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했던 마음 사랑할 게 많아 기쁜 마음을 담아낸 본

리마의 제목은 'Cinta Sejati - '신실한 사랑' 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라는 단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Cinta

suka atau sayang sekali
좋아하거나 아주 많이 아끼는 마음

- Aku cinta kepadamu apapun yang terjadi.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Rasa sayang atau suka yang sangat besar 아끼는 마음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 클 때
- Cintaku kepadamu tidak berubah meskipun kita sudah berpuluh-puluh tahun menikah.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을지라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Asmara

perasaan senang kepada lawan jenis (ke-lamin) 성이 다른 상대에게 느끼는 좋은 감정.

- Dia sangat gelisah karena sedang dilanda asmara. 사랑에 짓밟힌 그는 매우 불안하다(초조하다).

Kasih

Rasa ingin memberi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

- Kita harus menebar kasih kepada sesama manusia. 우리(인간)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Memberi

(단순히) 무언가를 주다.

- Siapa yang kasih kue ini? 이 과자는 누가 준거지?

Kasih Sayang

cinta kasih
사랑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

- Kasih sayang

Tuhan kepada manusia itu sangat tak terhingga.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사랑)은 끝이 없다.

Menaruh hati

menyukai atau memiliki ketertarikan terhadap seseorang atau sesuatu.

동사로 쓰일 경우 :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마음.

- Aku menaruh hati pada pegawai baru yang duduk di sebelahmu.

내 옆자리에 자리한 신입직원에게 마음이 있다.

Menyukai

senang terhadap seseorang atau sesuatu.

동사로 쓰일 경우 :

어떠한 사람이나 형태를 보고 즐거운 마음.

- Aku menyukai gagasanmu yang berani itu. 나는 당신의 그 용기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Menggemari

sangat suka

굉장히 좋아하는

- Orang asing itu menggemari salah satu makanan khas Indonesia, gado-gado.

그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중 가도가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Tip)

Gila sakit ingatan ; sakit jiwa ; pikiran yang terganggu atau tidak normal

미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미친 듯이 좋아하다는 표현을 쓸 때 사용 됩니다.)

-Kegemarannya main game komputer membuatnya seperti orang gila yang tidak tahu waktu.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미친 사람 된다.

- Dia benar-benar gila main game. 그는 정말 게임에 미쳤다 (게임을 비정상일 정도로 좋아함).

Tetaplah tersenyum 웃어라 동해야



김준이 아나운서 시절 오도 방송을 해 망한 김치 공장 사장과 그의 아내 “봉이 엄마” 는 원수 같이 생각하는 김준네 집인지 모르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욕심에 그의 집에서 가정부살이를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김준을 마주하게 되고 불같이 화를 내며 나왔지만 이성을 잃고 분개한 탓인지 가방을 두고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Aku tak sudi untuk kembali ke rumah itu!

Aku tak sudi untuk kembali ke rumah itu!
그 집에 다시 들어 가기 정말 싫은데!

Sudi (Bersedia)~할 용의가(뜻이) 있는(주저함 없이)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서 행한다는 뜻으로는 Mau, Suka와 같지만 무엇인가 행할 때 또는 행하기를 원할 때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라는 뜻을 내포해 더 강한 표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을 원하다’ 의 Mau(Sungguh-sungguh suka hendak berbuat sesuatu) ‘~을 행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이라는 의미와 Suka (mau, sudi, senang,) ‘~을 좋아해서 즐거운, 즐기기 때문에 원하는’ 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Akupun tak sudi melihat dia lagi.

나 역시 다신 그를 보고 싶지 않다.

(불 용의가 없다)

Apa maunya datang kesini?

뭐 하려고 (원해서) 여기로 온데?

Saya suka nonton seri drama Korea.

저는 한국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보기를 좋아하다 - 원하다)



안선근(박사)

이슬람 문화의 이해

자와(Java) 이슬람의 이해

자와 마을 사람들은 신비의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

No two Javanese mystics or mystical texts describe the path or the nature of mystical experience in exactly the same manner. While they share a set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goals, terminology and emphasis differ significantly. So much so that even prominent mystics are often incapable of understanding each other's system and symbolism. (Woodward, 1989:184)

(자바인들의 신비주의 또는 신비 텍스트는 두 개의 경로가 아니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신비로운 경험의 본질을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 원칙과 목표, 용어 및 강조점에서 그들은 상당히 다르다. 너무나도 유명한 신비주의의 서로 다른 체제와 상징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 우드워드, 1989:184)



자와(Java) 인의 주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활의 일부는 바로 신비의 비법(mistik)에 있어서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을사람들의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와의 한 마을 Tegalrejo 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이들 마을 사람들은 거의 100% 이슬람 종교이고, 자녀들은 전통 이슬람 학교인 프산트렌을 다니고 있는데, 정작 이들 자신들은 이슬람 외에 신비(mistik)의 비법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의 전통방식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강하게 갖고 있었다.

사회인류학자들이 보는 자와 이슬람의 실체

이는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와 이슬람의 종교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1960년 Greetz, 1969년 Wertheim, 1974년 Ward, 1979년 Ricklefs, 1988년 Suryadinata 의 저서에 의하면, 자와 사회의 주민들 대부분은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다. 그러나 Greetz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슬람 종교의 특성을 “Santri, Abangan, Priyai”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이슬람 신도가 Abangan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Abangan의 경우 이슬람의 종교 샤리아 율법을 100%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점만을 고려하여 이슬람 종교를 수행하고 믿는 무리라고 표현하면 좋을 듯 싶다.

그래서 자와의 경우 이슬람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이전의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의 장점과 더불어 자신들의 지역 마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믿어오고 있는 원시종교 및 무속신앙, mistik 등 믿음의 상호 장점을 함께 상생 공존 시키면서 공유하고 믿고 있는 혼합종교(Sinkretisme)의 양상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혼합종교의 실체는 자와의 종교 믿음을 대표할 수 있는 “Kejawen” 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다. 이는 Niels, 학자의 경우에도 자와 이슬람에 대한 저서 “Mysticism and Everday Life in Contemporary” 라는 책을 통하여 자와 사람들의 이슬람의 특색 및 성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전의 원시종교나, 무속신앙, 힌두, 불교의 주된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믿고 있고, 비록 종교는 “이슬람” 이라고 하지만, 현지 마을의 전통사상을 아직도 유지 보존(종교 외에 문화, 예술, 음악, 건축, 춤, 그림 등을 통하여 그 문화적 가치/관습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중부자와 족자 지역의 끄라톤 왕국에서 보여주듯이, 지역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어오고 있으나, 실질 종교적 행사나 전통 문화적 마을 행사에는 순수 100% 이슬람 이 아닌 혼합종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 문화(Complex Kultural)적 요소를 함께 병행하여 오고 있는 양식이다.

그래서 족자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지역사회 왕궁 문화 상하의 숭배사상 및 혼합종교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 융합과 화합의 일치가 아주 잘 되어 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종교적, 종족적, 문화적 갈등과 대립이 없는 잘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수 지역사회 중의 한 예라고 보면 된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불교, 기독교, 무신론자의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가 있으면서도, 전통 사상으로 유래되어 내려오는 유교사상의 조상숭배 형태인 절이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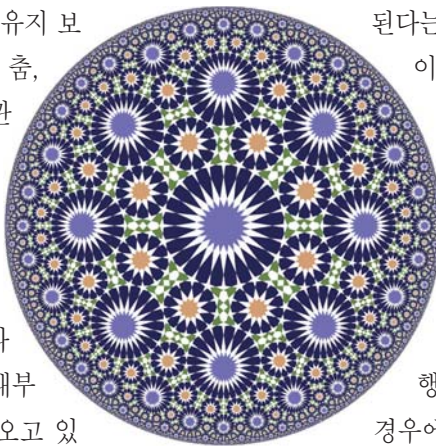
묘, 새배를 미덕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풍습에서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다. 자와 이슬람 역시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통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종교 문화적 풍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자와인의 종교, 문화적 풍습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들여다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구는 87%가 아닌 60%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우리가 통계를 통해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구의 87%라는 비율은 결국 자와 이슬람 종교인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슬람의 실체를 3가지 부류로 파악한 상기 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의 비율은 87%가 아닌 6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사회 문명에서 특히 젊은층의 경우 이슬람의 5주 6신에 대한 믿음의 성향이 아주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코란에 의해 하루 5번으로 규정된 예배를 보지 않으며 금식 등 5주의 기본인 이슬람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원의 경우에도 예배를 보는 신자는 노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경우 하루 5번으로 정해진 예배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슬람 성향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 비해 볼 때 이슬람 정당이 점차 무기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슬람 단체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NU, Muhammadiyah 단체의 경우에도 이슬람 종교인의 강한 성향 보다는 nasionalisme/independen에 입각한 국가적 성향의 사람들이 대거 포진되어 주 정부의 고위직을 맡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경우에도 이제는 전통 이슬람의 원리주의에서 이슬람 현대화의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의 진정한 G2 역할을 바란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2011년 1월 19일, 세계의 눈은 워싱턴으로 집중됐다. 탈냉전 이후 미국 독주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시대로 접어드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2011년에 양국간의 안정적 협력관계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중은 공히 안정적·실용적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중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12년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유지가 긴요했다. 비록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중 압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양보를 유도하는 실리적 접근이 요구됐다. 2012년 18차 당대회를 앞둔 후진타오 주석으로서도 불안정한 대미 관계 유지는 5세대 지도부로의 원활한 권력이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대미관계가 지속 악화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모두 명실상부한 'G2'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긍정적·안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할 필요가 있었다. 미중이 양국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향후 10-15년의 양자관계 및 세계질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1979년 1월 미·중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성사된 덩샤오핑의 미국 방문 이후 가장 중요한 미·중간 이벤트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중 양국은 양자관계를 '제로섬적' 관계가 아닌, "긍정적, 협력적, 포괄적"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 공통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 정상의 생각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지는 않다. 정상 선언문에서 언급된 한반도 관련 문구들을 보면 대체

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한반도 긴장고조 및 북한의 우라늄농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critical importance)하며,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importance)하며,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sincere and constructive)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가 매우 중요(crucial importance)하며, <9.19 공동성명>에서 이루어진 비핵화 및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concrete and effective steps)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19 공동성명> 및 관련 국제 의무/약속에 위반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며, 이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기 재개(early resumption)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G2로 대접받기 시작한 중국의 태도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겨두고 있는 인권문제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찾아볼수 없었다. 덩치는 G2이지만 진정한 G2의 모습을 찾기는 역부족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물론이고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력공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이 여전히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는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이와관련 중국이 G2에 걸맞게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세계와 지역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질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은 불량국가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끌어 안으려는 중국을 G2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지역 패권에 연연하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혜택을 나눠야 할 시점이며, 그 시작은 북한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원)

북한의 연이은 대화공세의 저의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연이어 전개하고 있다.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를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을 주장한 이래, 1월 5일 ‘정부 · 정당 · 단체 연합성명’ 을 통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고, 1월 8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당국간 무조건적인 회담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연일 남북대화과 협력을 강조하는 논설, 사설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제의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 원인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 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 (신년공동사설),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이 빚어낸 후과(연합성명)’ 등으로 규정 지은 채 우리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북한은 현정부 들어서만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살, 제2차 핵실험 강행, 제3차 서해도발,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군사모험주의를 자행하며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이끌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남측의 자작극’ 이니 ‘선제포격에 의한 대응’ 이니 하며 진실마저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화를 제의하면서, 우리정부를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 광신자’ (신년공동사설)로 매도한 가운데 1월 5일 연합성명에서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을 위해 비방 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해 놓고,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현정부를 재차 ‘남조선호전광’ 으로 비방했다. 이러한 작태는 대화제외에 대한 북한정권의 허구성과 이증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마음에도 없는 무조건적인 남북대화과 협력을 연이어 제의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정에서 북한이 자행할

남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대한 명분 쌓기 용으로, 지속적인 대화-평화공세를 통해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며, 아래와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술책이다.

첫째, 대남측면에서는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국내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 고 정부를 압박하고 남남갈등을 조장, 사회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조건적인 대화공세를 제기, 이른바 평화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셋째,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체제 및 정권수호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다. 이는 북한이 연초부터 ‘대남 대화공세’ 를 대내 언론매체에 집중 보도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남한당국의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 대화를 제의했는데 남한당국이 이를 거절하고 대결책동을 고수하고 있어 혁명의 수뇌부(김정일)와 당중앙(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미제와 남한의 전쟁공세를 막아야한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남 가장평화공세를 체제결속과 수령독재체제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정권 출범이후 64년간의 남북관계사를 되새겨 보면, 북한은 대남 강경노선 후 어김없이 대화공세를 전개하는 전술적 변화상을 보여 준바 있다. 자신들의 폭력노선을 평화공세로 역이용하여 우리정부를 압박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첫째,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보상,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 둘째, 6자회담의 기합의대로 조속히 핵개발을 중지하고 핵시스템을 폐기할 것. 셋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 아닌 남북기본합의서(1992)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대화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의 정교한 대남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기대한다. ●●

거석문화가 숨쉬고 있는 섬, 솜바



가종수
슈지쓰대학원 교수

한국의 지석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다. 역사학의 기본요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또는 ‘어떻게’이다. 한국 지석묘로 말하면, 언제와 어디서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다. 그런데 솜바섬의 지석묘는 지금도 살아 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솜바섬은 ‘지상에 남은 마지막 지석묘 사회’이다. 솜바섬 돌멘의 축조과정은 한국의 지석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 현재도 솜바섬에서 지석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솜바섬도 예외 없이, 근대화라는 큰 파도에 휩쓸려,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석묘는 석재로부터 시멘트제로 바뀌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돌멘은 거의 시멘트제이다. 석재 운반에는 트럭이 사용되어 돌멘을 운반하는 행사나 의례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1947년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탄생 이후, 신분제도의 철폐에 의해, 왕이나 왕족의 계층도 사라져 대규모 지석묘의 축조도 없어졌다.

필자는 솜바섬에서 전통적인 돌멘 축조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2008년 8월에 디키타 마을에서 대규모 돌멘 축조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자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돌멘이 축조된 마을은 행

정적으로는 서솜바로 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북솜바에 가깝다.

우리 연구자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스스로 해외에서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특히 1990년대에 한국의 선사시대나 고대사와 관련한, 주로 북방 아시아의 몽골과 중국 동북 지역의 조사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 상당한 연구실적이 축적되었다.

우리 한민족의 주류는 북방 아시아계이며, 오랜 기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필자도 한국문화의 기원을 찾아서, 몽골이나 중국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나 북방 아시아를 연구하면 할수록 과연 한국문화에는 북방 아시아나 중국계 문화뿐일 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당연히 우리 문화에는 한국 고유문화도 있고 또 동남아 문화와 공통되는 요소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한국문화의 ‘북방문화론’, ‘남방문화론’은 벌써 1970년대부터 학계의 쟁점이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광규는 우리나라 문화권을 북방문화권과는 별도로 제2차 문화권의 설정을 제창하고 있다. 문화인류학자인 이광규 박사는 삼한의 북계, 이후의 신라, 백제지역의 북계, 이 근처에 선을 그어, 민속, 신화, 성인식이나 청년집회소, 지금도 섬지방에서 볼 수 있는 초분 등, 모두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문화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서, 그 문화권을 우리나라 남부지방, 일본 규슈지방, 중국 동해안과 대만을 포함한 지역을 ‘동중국해 문화권’이라고 불려, 그 범위를 한층 더 넓혀 ‘범태평양연안 문화권’을 상정하고 있다. 이광규 박사는 돌멘(지석묘)과 멘히르(입석)라고 하는 거석문화의 분포는, 대체로 해안을 끼고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싸고 있고, 그 전파는 지중해,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을 지나서 한반도에 유입됐다고 지적해, 지석묘나 신석기 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문제 삼았을 때, ‘범태평양연안 문화’와 같은 흐름을 염두에 두어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가 되면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병모가 자바섬과 발리섬의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제주도 돌하르방과 한국 지석묘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전파성

이 제기되었다. 김병모 박사의 자바섬과 발리섬에서의 조사가 한국 고고학자에 의한 최초의 인도네시아 학술 조사였다. 김병모 박사의 제주도 돌하르방과 한국 지식묘의 기원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난생신화와 벼농사 문화와 함께 구로시오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전해졌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라기보다는 학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학설이었다. 필자의 1988년부터의 인도네시아 제도의 거석문화 조사는 김병모 선생님의 연구에 의한 영향과 '구로시오를 타고 온 고대문화' 를 쓴 도시사대학 교수이자 필자의 은사인 고 오가와 고요 선생님의 학문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학이나 인류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국문화의 남방기원설' 은 대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연구자가 많았다. 물론, 한국의 선사문화와 고대문화의 이른바 남방기원설을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하기까지는 남겨진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데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원래 '남방' 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가 애매하고, 게다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점령한 현재의 동남아시아의 일부 전초기지를 '남방' 이라고 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후, '남방민족' , '남방문화' 라고 하는 용어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다. 그런데 이 대동아전쟁 시의 일본군이 점령한 일부 지역과 문화를 가리키는 '남방' , '남방문화' 가 나중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왜곡, 축소시키는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된다. 어떤 일본인 학자는 우리나라 문화권을 한강 일대를 경계로 북방문화권과 남방문화권의 두 개로 나누어, 마치 남부와 북부는 민족 계통이 달라, 그 남쪽을 주류라고 보고 북측의 고구려, 부여는 나중에 분리되었으므로 한국사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극단론까지 등장한다.

필자는 한국 지식묘의 기원을 역지로 인도네시아에 연결시킬 생각은 없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지식묘에 대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만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면밀한 학술조사와 연구이다. 우리의 DNA 상당수는

북방아시아계이지만 바다를 건너서의 상호교류도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숨바의 신화 (Mitos Sumba)

숨바의 신화에는 우주 창조의 여신인 '이나 파카우룽구' 와 남신인 '아마 파카우룽구' 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지상의 오래된 숲의 언덕에 보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신을 '이나 불' , 남신을 '아마 다바' 라고 말하는데, 두 사람은 큰 눈과 귀를 가졌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볼 수 있으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여덟 명의 아들과 여덟 명의 딸을 낳았다. 열여섯 명의 아이들은 천국과 지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북숨바의 사사르 동굴에 정착하였으며, 이들이 숨바족의 시조라고 하는 신화가 전해진다.

숨바섬 (Pulau Sumba)

인도네시아 소(小)순다열도 중부에 있는 섬. 면적 1만 1082km². 인구 약 35만(1995). 플로레스섬 남서쪽 난 바다에 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500~600m의 석회암성 구릉지형으로 이루어졌다.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사바나기후 때문에 농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으나 숨바말의 사육과 백단향(白檀香)이 유명하다. 처음에는 포르투갈령이었으나 1756년 네덜란드령이 되어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점령 아래에 있었다. 중심지는 와인가푸이다.

가중수 교수는

충청남도 태안 출생이며 일본 도시사대학 대학원 문화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전공은 역사인류학이다. 지금은 슈지쓰대학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시아의 거석유구에 관심을 갖고 1988년부터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멘히르, 지식묘, 석상 등의 거석유구이다. 저서로는 <Island of Gods>, 같이 지은 책으로는 <한국전통문화론>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숨바섬의 지식묘 사회> 가 있다.



당신의 별은 어느 것인가?

김덕우(AIS 10)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하늘에서도...

별은 사람들과 많이 비유되곤 한다. 탄생하고 늙어가고 환하게 빛나지만 결국엔 최후를 맞이하는 별의 일생이 사람과 비슷해서일까? 때로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으로도 묘사가 되고 때로는 큰 믿음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우리 삶에서의 별. 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별들을 지난번 문화탐방에서 보고 돌아왔다. 인도네시아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별이 있는 곳과 인도네시아를 지켜오던 별들이 숨 쉬던 곳들을 내가 다녀온 것이다.

이번 문화탐방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동남 최대의 이슬람사원인 'The Mesjid Istiqial' 이었다. 엄청난 규모에 놀랐고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슬람교도들 특유의 믿음에 다시 한 번 놀랐었다. 넓은 1층에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자 종교의 힘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약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사원의 특이한 점은 벽면이 스테인리스 조각으로 만든 격자무늬로 되어있다는 것인데 이 격자 구조가 햇빛을 막고 통풍을 잘 되게 한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모두 격자구조를 사용한다고 한다. 제일 놀라웠던 부분은 사원 밖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슬람 사원 앞에 위치한 가톨릭 대성당. 100년 된 대성당과 동남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이 마주보고 서있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기독교와 이슬람, 섞이지 않을 것만 같

은 이 두 종교의 사원이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걸 보면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두 종교지만 어떤 이들은 이슬람사원 꼭대기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어떤 이는 대성당 꼭대기의 별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두 건물은 인도네시아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엔 두 종교 모두 별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서로 다른 별을 본다는 이유로 대립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워지는 순간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동남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크리스천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두 종교의 만남이 아닐 수가 없다.

다음 목적지는 국립박물관이었다. 박물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난 국립박물관에 있는 많은 유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지만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알아듣기 쉬웠고 유물 하나하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립박물관은 인도네시아 전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었다. 워낙 넓고 인종이 다양한 나라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사실 나는 한 나라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려서부터 한민족이 살고 있고 한 가지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를 정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국립박물관에서 본 유물들이 알려주는 사실이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

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 나라 안에서조차 마치 다른 나라의 유물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문화적으로 복 받은 나라인가? 나는 국립박물관에서 인도네시아라는 별을 빛나게 해주던 소박하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한 빛들을 보았다. 비록 모든 유물들을 보진 못했지만 세상이 넓고 한 나라마다 나라를 빛내주는 소중한 유산이란 이름의 빛이 있다는 것을 깊게 느끼면서 국립박물관을 떠났다.

우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하려고 사력을 다하던 1940년대의 격전의 세월을 담은 조양박물관, 독립선언서 기초박물관이었다. 이곳

에서부터는 정말 만나보고 싶던 김문환 선생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다. 이런 곳은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식민통치를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었고 일종의 동병상련도 느낄 수 있었다. 여

기저기 걸려있는 독립전쟁의 한 부분 부분들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산속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수드리만 장군,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수카르노와 청년들.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희망들이 스러지고 일어나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몽클함을 느꼈다. 60여 년 전, 그곳에는 수카르노가 있었고 하타가 있었으며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유능한 엘리트의 청년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 내가 서있다고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짜릿했다. 눈이 시린 듯한 느낌, 내가 밟고 있던 그 건물

의 바닥도 내가 숨 쉬고 있던 건물도 그리고 내가 들어섰던 문으로도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투사들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보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느꼈을 급박함과 초조함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정과 어렴풋이 생겼을 작은 희망 그리고 작은 설렘까지도 똑같았을 인도네시아 독립투사들의 혼이 서린 그곳에 내가 서 있었다.

끝으로 천문박물관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다. 사실 이번 문화탐방에서 천문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설명해주던 별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알고 있던 기본적인 별자리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실 인도네시아 말이었던 터라 알아듣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천문박물관

에서의 30분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저 눈에 보이는 별들 말고도 저 우주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고 있을 별들이 있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게, 돛 천장에 비춰진 별들은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 얼마나 살든 우리들은 하나의 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꿈의 별일 수도 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수많은 별들의 장소를 다녀왔다. 항상 느끼지만 문화탐방을 다녀오면 가슴 속이 뿌듯해지고 꼭 차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별을 가슴에 품고 온 듯한 느낌. 목표가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가 생긴다면 문화탐방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한다. 분명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별 하나를 품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상소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살게 된 지 고작 2년을 조금 넘긴 제가 인도네시아의 문화나 생활에 대한 글을 써서 상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아직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제가 쓴 글보다 이곳에서 오래 살고 또 저보다 글 솜씨가 좋은 다른 학생들이 쓴 글들도 많았을 텐데 학교차원에서 주는 상이 아닌 공모전에서 제가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탐방을 다녀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The Mesjid Istiqial' 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굳은 믿음과 정신 그리고 독립선언문기념관과 조양박물관에서는 혼돈의 20세기 초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이루어내 보려는 그 당시 인도네시아인들의 강하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전통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사실이 4개의 장소에서는 서로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날 문화탐방의 마지막 장소였던 천문박물관에서 돛 천장에 비춰주던 별들을 보면서 비로소 4가지 장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슬람사원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믿음의 별을 보여주는 장소였고 독립선언문기념관과 조양박물관은 혼돈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빛으로 이끌었던 인도네시아를 지키는 별들을 기리는 장소였으며 국립박물관은 그 별들을 빛나게 해주는 문화란 이름의 빛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란 이름의 우주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들을 저는 그날 보고 느끼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에 출품할 글을 쓰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모전이 2회 3회 쪽 번창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기여하는 공모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제 스스로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날 당신은



그 어느 날
난 길 잃은 새벽별이였죠
걸어도 걸어도 길이 없는
올다 지쳐 잠이든 내 인생길 속에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내 앞에 계신 당신입니다

풀어놓은 쪽빛 하늘 아래
들들들 흐르는 시냇물처럼
시월의 향기로 내 인생의 노래가 되신 분
언제나 제 안에 계십니다

그 밤 지나
하늘 어둠 헤치고 청명한 불빛 아래로
내 사랑 당신께로 흐르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타는 목마름 중에
내 인생의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그 어느 날
난 방황하는 나그네였죠
뛰어도 뛰어도 길이없는
올다 지쳐 잠이든 내 인생길 속에
다가오셔서 다가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신 당신입니다

풀어놓은 노을빛 하늘아래
가을로 서있는 빠알간 우체통처럼
내 인생의 질그릇에 기쁨 담아 주신 분
언제나 설레이는 그리움으로 서 계십니다

그 낮 지나
하늘 구름 헤치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로
당신 사랑 내게로 흐르고
태양 그 거침없는 눈부심 속 타는 그리움으로
내 인생에 수채화가 되셨습니다



이영숙

서울 케이블 텔레비전 주최 엄마와 함께 떠나는 문학여행 시부문 금상 수상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 신춘문에 시부문 최우수당선으로 등단
월간 문예사조 신인 작품상 수필부문 당선
재인니 문인협회 회원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거든 세상이 답하게 하라

저자 : 김은미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정가 : 12,000원



주어진 운명의 안전벨트를 풀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서라!

아시아 6개국 7개 도시 11개 지점 규모의 회사 다국적 기업 CEO SUITE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김은미, 미킴. 이 책은 그녀가 세상과의 한판 승부에서 힘겹게 승리하고, 코스모폴리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낸 책이다.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그녀는 과감하게 호주로 떠나 백인들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받은 온갖 차별과 고난을 물리치고 업계 1위의 마케터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차별의 벽을 느끼고 회사를 박차고 나와 ‘내가 내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일념으로 오피스업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른다. 누구도 자신을 위해 길을 만들어놓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낸 그녀는 세계 경제 불황 등의 한파를 뚫고 지점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성공했다. 그녀가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많은 일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며 삶과 일, 도전정신에 대해 들려준다.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기 위해 젊은이들이 갖춰야 할 기질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친해질 수 있고, 어떤 끈경이 닥쳐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내성의 근육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아낌없이 펼쳐놓는다.

지금은 지구 전체가 한 무대인 시대이다. 그 무대를 중흥무진 뛰어다닐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세상은 자신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

부정적인 자아는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지만, 긍정적인 자아는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을 이끈다.

미킴은 말한다.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친해질 수 있고, 어떤 끈경이 닥쳐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내성의 근육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선택, 자신이 주인공 무대를 연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책 속으로

내 발걸음의 화살표는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대로 우리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인가? 유학을 가서 내 시장 가치를 높이면 더 근사한 직장에서 스카우트 체의가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느 나라로? 결론을 내렸다. 일단 어디든 떠나자. 현명한 바보가 되기로. 스물여섯, 제자리에 남아 시들어가는 젊음을 바라보는 대신 낯선 땅으로 가 보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에너지와 인내는 열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열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때 계속 타오른다. 한계와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정신의 키가 조금씩 자라고, 그러는 동안 정상에 도달하는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남들이 정해 준 혹은 사회가 마련해 준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도달하기는 쉽지만 평범하기 그지없는 로드맵만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누구나 그럴 법한 획일화된 세계에서 평생을 보내기 싫다면 안전벨트를 풀

어야 한다. 그리고 더 크고 험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 그 순간 두렵고 떨려서 온몸이 오그라든다 할지라도 말이다.

- 「제자리걸음 대신, 현명한 바보가 되기로」 p.35

등지 밖으로 밀려나 본 새만이 멀리 날 수 있다. 결국 국민 끝에 세상이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솔직히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오랜 시간 망설였다. 일단 무엇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게 없었다. 사업 경력은커녕, 사장이 될 자질이나 성향도 전혀 없었다.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그렇다고 뒤를 대줄 만한 자본가도 없었으니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 하지만 내게 온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기로 결정했다. 나를 해고한 사장은 오히려 나의 숨겨진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준 것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통해 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넘어져 본 자만이 일어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등지 밖으로 밀려나 본 새만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장에게서 내쳐졌을 때, 난 이미 상공을 향해 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 「내가 나를 직접 고용주로 삼겠다」 p.112

도대체 왜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세요? 한국에서의 평범한 회사생활을 거부하고 외국어와 일을 배우겠다고 세계 각국을 찾는 젊은이들은 틈새시장의 개척자들이다. 그들이 세계 시장의 가능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립대학 한 학기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내외다. 사립학교도 150만 원 정도의 등록금만 있으면 된다. 영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어도 함께 익힐 수 있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다. 그렇게 일을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자기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는다. 거만함이나 자만심에 물들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게 되니, 본능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감각도 길러진다. 직접 부딪혀 얻는 경험들이 주는 지혜다. 아마 나 역시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규모로 사업을 키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완벽한 시스템이 정착된 나라에서

틈새를 파고들기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동남아시아를 적극 추천한다. 확실한 아이템과 계획만 있으면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이다. 두려워 할 이유도, 나오지 못할 이유도 없다.

억울하지 않은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나를 간절히 원하는 곳이 있는데 단지 한 발짝 내딛을 용기가 없어서 평생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것이 말이다. 성공의 키워드는 사고의 유연성에 있다.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없다. '한 번 다르게 생각해보기' 그것이 바로 사고의 유연성이며 창조성이다. 그리고 당신은 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려왔던 그 세상을.

- 「세상은 넓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p.163~164

저자 김은미 Mee Kim

24년 전 대한민국에서 답을 구하지 못했던 20대의 한국 여성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열정, 도전 정신 하나만을 가지고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호주에서의 고학 생활, 입사 후 겪었던 슬한 차별과 편견의 파도를 넘어 아시아 6개국 7개 도시 11개 지점(싱가포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방콕, 상하이, 베이징) 규모의 회사 CEO SUITE의 창업자, 최고경영자가 되었다. KBS TV 프로그램 「지구촌 한국인」에 출연하였으며,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 『비즈니스 타임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코스모폴리탄』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등 세계의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올해의여동문상' (2008) 『여성신문사』 '미래여성지도자상' (2011)을 수상했다. 또 CEO SUITE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도네시아 『한인뉴스』 편집위원,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 수디르만 로터리클럽 회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11년에도 건기 없다

2011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기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기상청 관계자가 전했다. 그에 따라 인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 정부는 극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에 근거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핫따 라자사 경제부 장관은 1월 6일 “대통령훈령에 따라 농업부 장관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줄 것이다. 농업부장관은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 비료 배급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농작물이 해충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해충을 이겨내는 종자를 직권으로 배급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농업부 자체에 3조 루피아의 자금을 준비했다고 핫따 장관은 말했다.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악영향 미쳐

인도네시아는 일 년이 넘도록 이상기온에 따른 이상 강수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최근 식료품 가격에 대한 우려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밀 가격은 47%, 미국 옥수수 가격은 50% 이상, 그리고 대두 가격은 34% 상승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La Nina’ 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예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 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끄는 쌀, 팜, 고무, 카카오, 커피 등의 농작물 수확과 광산 채굴이 떨어졌으며, 특히 30% 생산량 감소로 고추가격은 현재 8만~10만 루피아 대를 기록했다. 지나친 강수량도 한 몫을 하여 도로 사정을 악화시키면서 상품 출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국영 물류공사(Bulog)는 쌀 매집 목표치인 320만t에 훨씬 모자란 190만t을 매집하는 데 그쳤다.

식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당과 같은 서비스 업계의 Menu Cost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전통 탕(Bakso) 500루피아 그리고 흔히 공짜로 제공됐던 인도네시아 전통 고추장(Sambal)은 2000루피아를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가격의 상승은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두 자릿수로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소비자 구매력 저하와 소비 감소를 이끌어 2011년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필품 가격 통제를 위해 다양한 조치 강구하고 있다. 식품 안정화 공급을 위해 1조 루피아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식품 공급 차질 완화(종자, 비료, 1000대의 쌀건조기 등을 보조)를 위해

2조 루피아를 투입 예정이며 10만 가구(람퐁, 반텐 그리고 자카르타)에 무상으로 고추 씨앗을 공급해 고추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 추진 중이다

그러나 3월부터 시작되는 연료 보조금 철폐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인도네시아 물가상승에 추가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SBY 대통령은 2011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곡물 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 물가와 곡물생산량 안정화. 이를 위해 시장개입과 재정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2011년 연료보조금 단계적 철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13년 동안 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까지 총 20조7600억 루피아 보조금 예산 절감을 위해 2010년 3월에 보조금 철폐를 시작하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따라서 보조금 대상 차량은 민간·정부·군 소유 차량이며 대중교통, 오토바이 그리고 어선의 연료보조금은 현행 체제 유지시키기로 했다. 보조금 철폐 대상 차량은 6100~6800루피아/리터에 연료를 구입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계적인 보조금 철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1단계 : 자카르타(보고르, 땅그랑, 버카시 그리고 데폭) 지역에 2011년 3월부터 적용
- 2단계 : 2011년 말까지 자바, 마두라 그리고 발리 지역에 실시
- 3단계 : 2012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실시
- 4단계 : 2013년에 슬라웨시 지역에 실시

정부의 이런 결정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주유소마다 비보조금 연료주입기를 설치하는데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며 시

행의 어려움을 내보이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 교통상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 보조금 철폐로 0.9%p의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보조금 연료의 암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 인니 국가채무등급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채무 등급을 종전 Ba2에서 Ba1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무디스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자본의 직접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외화 및 현지화 표시 국가 채무 등급을 한 단계 올렸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외국자본 유입과 강력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6%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난다 미트라 무디스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외국자본 유입 증가와 구조개혁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트라 부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적절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등 경제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투기자본 유입 등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준 금리를 6.5%로 1년 넘게 동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참조 : <인도네시아 투자뉴스>





1.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2.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3.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인원편의제공을 위해 층전 보다 넓혔다.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대사관 임시청사 안내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이용 안내

○ 일반절차

- 1층 로비 원편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과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30층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KOICA(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사무소 이전 안내

주소:
The Plaza Office Tower, Unit E 20th Floor(20층)
Jl. MH. Thamrin No. 28-30, Jakarta 10350
전화: 021) 2992-1900, 2992-2100, 2992-2101
팩스: 021) 2992-2102(KOICA), 2992-2103(KJE)

이용절차:

- 건물로 들어오신 후 안내원에게 방문기관 및 층수 (KOICA, 20층)를 알리고 신분증을 맡긴 후 출입증을 받습니다.
- 총 3개의 건물 중 LOW 라고 적혀있는 건물로 향하여 출입증을 출입센서에 대신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 백화점과 The plaza building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 의 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 락 처 : 521.2515 / 0816.1883.224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 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 관람.

한·인니문화연구원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신유희 (0818.708.228)



월화차회

모임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 의 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 락 처 : 720.4211 / 0818.491.325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루시를라워 꽃꽂이반

강좌시간 : 매주 화요일 09:00 ~ 11:00.

장 소 : Taman Gandaria C-23

연락처: 021)739.6444 / 0811.834.026

(사) 한국 꽃예술작가협회 루시 플라워회

회장 최 정 순

가루다항공 탑승객에 대한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 시행



인도네시아 이민청은 2010. 09. 01부로 서울-자카르타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 기내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완료하는 기내출입국심사(IMMIGRATION ON-BOARD)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내출입국심사제도(IMMIGRATION ON-BOARD)는 인도네시아 이민청 직원 2명이 서울발 자카르타행 Garuda항공에 탑승하여 기내에서 우리 국민 등 승객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입국심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증명하는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교부하며, 동 절차를 마친 승객은 도착지인 수카르노하따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완료카드(IMMIGRATION CLEARANCE CARD)를 이민청 직원에게 반납함으로써 입국절차가 완료됨.

동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Garuda항공 체크인카운터 옆에 마련된 도착비자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도착비자수수료(25불)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기내에서 이민청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함.

동 제도 시행으로 수카르노하따공항에서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를 받기 위한 만성적인 대기시간(최대 2시간 정도)을 없애 당지 입국에 따른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당지 이민청은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면서 인천공항-발리 행 Garuda항공 탑승객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컨설팅.M&A.부동산.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중재.재단법인.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HP> 0816.1911.245

Tel> 021.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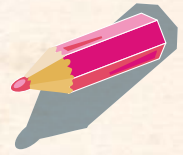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jkt_kimhoil@msn.com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대폭 개선

대한항공이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 세계 항공 업계 최장 마일리지 유효기간 설정 ▲ 마일리지 사용 항공기 좌석 수 확대 ▲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1. 마일리지 유효 기간 10년으로 확대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30일 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 마일리지 사용 좌석 확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 좌석을 상시 배정하고, 예약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 좌석을 최대한 추가 배정해 마일리지 사용을 더욱 쉽게 할 예정이다.

3. 초과 수하물, 라운지 등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항공, 호텔, 렌터카, 패키지투어상품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초과 수하물, 공항 라운지, 리무진 버스 등에서도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 대폭 확대

가족 마일리지 합산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가족끼리 부족한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까지는 회원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였지만,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늘어나게 되어 소액의 마일리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보너스 항공권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고가 악기 운반 및 고객 편의를 위해 별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좌석에 대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2010.10.31일 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 서울행 항공편 스케줄 안내입니다. Garuda Indonesia 와의 공동 운항편도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8	매일	31-Oct-10	26-Mar-11	자카르타	21:55	서울	06:45*1
KE627	매일	31-Oct-10	26-Mar-11	서울	15:25	자카르타	20:30

[겨울 성수기 추가편] 변경될 수 있음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26	월,수,금	22-Nov-10	31-Dec-10	자카르타	23:45	서울	08:45*1
KE625	월,수,금	22-Nov-10	31-Dec-10	서울	17:10	자카르타	22:20

[덴파사르 - 서울]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출발	도착		
		FROM	TO				
KE630	일	31-Oct-10	31-Oct-10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월,일	01-Nov-10	21-Mar-11		03:35		11:30
	화수목금토	02-Nov-10	26-Mar-11		01:25		09:20
KE629	토일	31-Oct-10	26-Mar-11	서울	20:05	덴파사르	02:15*1
	월화수목금	01-Nov-10	25-Mar-11		17:55		00:05*1

금융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제공 : 국제범죄정보센터>

최근 이메일 사기, 보이스 피싱 등 국제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 요령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이메일 사기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나 페이스북·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로부터 거액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 가짜 해외은행 :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을 인출하고 싶으면 서류처리 비용 등 수수료를 송금하세요. 매우 정교한 위조 복권 당첨금 증명서, 은행 직원 신분증 등을 같이 보내와 피해자를 현혹시킵니다.

- 가짜 UN·FBI : 거액의 유산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돈을 보내려면 송금수수료가 필요하니 우선 수수료를 보내주세요. 위조 국제기관 인증서를 보내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 사기범 : 미국정부 원조금, 아프리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몰래 빼돌려 검게 염색(일명 블랙머니)해 외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염색을 지우는 약품비, 운반비를 투자하면 거액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사기범은 진짜 달러, 유로화에 미리 검은 색을 칠해놓은 뒤 특수약품으로 처리하면 진짜 화폐로 원상 복구되는 것처럼 속이고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합니다.

- 사기범 : 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한부 암환자입니다. 법률수속비를 보내주시면 저의 재산 선교비용 등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사기범은 위조 은행 예탁증서를 보내 신뢰를 획득한 후 은행, 법률 수속비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챱니다.

☞ 예방요령

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십시오.

호기심에 답장을 보내는 순간 사기범의 집중 타겟이 됩니다.

② 거액의 돈을 손쉽게 벌수 있다는 이메일을 주의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손쉽게 벌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금융사기로 간주하고 공판에신고·상담하십시오.

③ 국제기구, 외국정부, 해외은행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조심하십시오.

UN, FBI 등은 유산 상속, 복권 당첨, 피해 보상금 지급 등 금전거래를 증명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④ 세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거래 성사시 생기는 이익금에 비하면 선수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⑤ 검은색을 칠한 달러나 유로화(블랙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블랙머니 사기범들은 주로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들로 이들의 초대로 현지를 방문하면 납치되어 돈을 강탈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2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국내 가족이 유학생·여행객들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차 및 통신 불편 등으로 신속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해 판단력을 흐리고 돈을 가로챍니다.

유학생·여행객 납치위장 전화사기

- 당신의 아이를 납치했다 : 아이가 현지 폭력조직에 납치되어 있으니 당장 돈을 보내라.
- 당신의 아이가 사고를 저질렀다 : 당신의 아이가 폭행사고를 저질러 합의금이 필요하니 당장 돈을 송금해라.

☞ 예방요령

- ① 납치전화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유학 또는 여행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송금을 하기 전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녀와 직접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 ② 평소에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 친구들의 연락처 및 학교 전화번호 등을 파악, 자녀의 위치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③ 해외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가족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십시오.

유형 3

메신저 피싱, 이런 대화를 주의하십시오.

-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대화를 요청합니다.
-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합니다.
- 사고, 경조사 등을 명분으로 돈이 급하다며 금전 송금을 요구합니다.
- 평소에 하지 않던 반말, 존댓말 등을 사용합니다.
- 본인 계좌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친구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 예방요령

- ① 메신저로 금전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십시오. 전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입금 받는 통장이 타인 명의인 경우 주의하십시오.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메신저에서 전달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계정은 가급

적 삭제하십시오.

유형 4

기타 국제금융사기

- 모조 달러화 이용 사기 : 액면 100만불권 달러화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액면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돈을 가로챍니다. 미국 화폐의 최고액권은 100불권이며 100만불권은 미국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선물·기념품 용도로 판매되는 모조품입니다.

- 이라크 화폐 '디나르화' 재테크 사기 : 지금 이라크 화폐 '디나르화' 를 사두면 이라크 재건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챍니다. '디나르화' 는 국제거래가 불가능하고 화폐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이라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화폐개혁 등으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해외 투자금 유치 사기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개인들을 상대로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보증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챍니다. 사기범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한 뒤 위조한 해외은행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무역거래 이용 사기 : 사기범들은 인터넷 무역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제품 상세내역 등을 파악한 후 외국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해 유리한 결제조건, 대량주문을 미끼로 선수금 등을 요구합니다. 송금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인증제도·법령 등 일반인이 검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을 들기 때문에 선수금을 요구 받았을 경우 반드시 코트라 등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자주 일어나는 금융사기 유형

- FBI 사칭 이메일 사기 : FBI 국장 등을 사칭하며 유산 상속 등 거액 이체를 미끼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 경제 보조금 지급 사기 : 오바마 정부가 경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안내 전화를 걸어 위장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후 보상금 신청을 위한 수수료 지불을 유도합니다.

- 초과지급 사기 : 의사·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크레이그리스트' (Craiglist) 등 생활정보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맺고 부정수표를 이용하여 구매금액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한 후 본인은 아일랜드 또는 나이지리아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며 제3자에게 초과 지불된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살해협박 사기 :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메일 수신자와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주변인물 가장 이메일 사기 : 피해자 주변인물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친구 등으로 가장하여 해외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길에서 강도를 당해 호텔·항공요금이 없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하여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 회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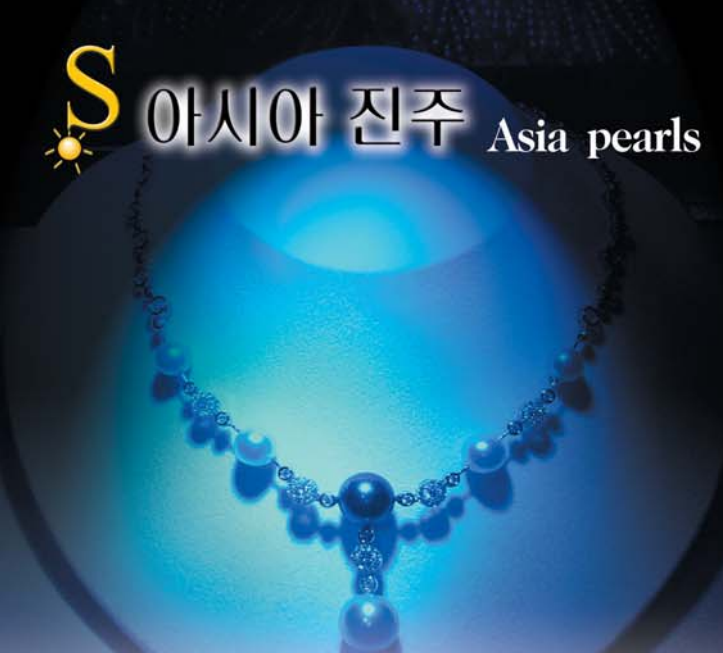
그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 상당수의 ‘한인뉴스’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연락처 박정자(편집장)
haninnewsinni@gmail.com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20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배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차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 1 No. 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둥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가주**

조지언 퍼니처	750	6109,766 0364
---------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귀환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데مْ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ini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Life style,
Modern & Minimalist, Italian Black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Telp. 021-5814590 / 021-98202086
0812 19285578 / 085217731003
email : ineepark@indosat.net.id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능
- 토·일요일 서비스가능
- 배달 서비스가능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가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가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생활정보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뿐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선륙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보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보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보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파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람)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쉽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021	522 4666
	0858	1341 3222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징)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 골프교실	781	7679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84-2283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 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ISIS VILLA	862 8777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 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ak-Sel



MISTICANZA
Ristorante Tropico alla Giapponese

Phone & Fax : 021-29022837
SAHID SUDIRMAN Residence
Jl. Jend. Sudirman 86
Jakarta 10220 - Indonesia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등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등 렌트카	0813 9400 9981
반등 한인부동산	0858 6130 8882
인니어번역 (Mrs. Lee)	021-743 2687 021-9432 2102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AVENUE	761 313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Lim Tailor

**40년 전통!! 최고의 기술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마춤양복 · 예복
바틱 · 와이셔츠 · 회사유니폼**

**유니폼! 회사의 얼굴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복을 맞춰드립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바틱!!
두 벌 맞추시면 한 벌을 더 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인도네시아 어디나 찾아가 맞춰드립니다.
0811.187.3382 // 0815.1059.0827
<http://limtailor.indoweb.org>**



제22회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요강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는 제22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1년 2월 7일(월) ~ 2월 18일(목)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3. 응시료 및 준비물 : 고급 40만 루피아, 초/중급 10만 루피아
사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시험일 및 시험 기간

시 험 일 : 4월 17일

과목 및 시간 : 제1교시 09:00~10:30 (90분) 어휘·문법/쓰기

제2교시 10:00~12:30 (90분) 듣기/읽기

* 시험시작 30분 전에 도착, 매 교시마다 시험 10분 전 입실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격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6.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배부합니다.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KITAS)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 작성용 컴퓨터용 사인펜은 교육원에서 지급합니다.

7.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 및 행정실

전화 021-844-4958 · 정재선(404) / 김영민(411)

-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 (<http://www.jik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 국립국제교육원(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인도네시아에 한국 문화원이 건립됩니다.

장소 : EQUITY TOWER 17층(864 m²)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Reception Area>



<Reception Area>

"한국 문화원"은

LIVING A&I가 DESIGN하고 시공합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류를 재점화시키는 거점으로서

문화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됩니다.

LIVING A&I는

"한국 문화원"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모든 교민들께서

문화 한국의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DESIGN과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ultimedia Showroom>

<Library>

THE SMART WAY FOR INTERIOR @ LIVING A&I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OFFICE : 7278-0704 MOBILE : 0815-1902-0666, 0811-989-634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